

2019년 가을호 vol.156

2019년 총동창회 대바자회
특집/유관순 열사 미공개 사진
이화인 모임 탐방/남가주동문합창단
만나고 싶었습니다/여성 제3호 검사장 노정연 동창

이화 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이화동창 회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이화동창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평생회비와 연회비는 총동창회의 장학사업, 회보 제작, 모교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회비는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연회비와 평생 한 번 납부하는 평생회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평생회비를 납부하시면 연회비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비 납부를 통해 이화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 평생회비(평생 한 번 납부, 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30만 원 – 2019년 기준 만 60세 이상, 1981년 이전 졸업 동창

50만 원 – 2019년 기준 만 60세 미만, 1982년 이후 졸업 동창

■ 연회비(1년에 한 번 납부)

3만 원

■ 납부 방법

지로 입금 – 《이화동창》에 동봉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

계좌 이체 – 신한은행 100-009-592614(예금주 : 남상택 이대총동창회)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동창》을 받으시는 분 중, 주소가 변경된 동창은

총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3277-3386~7, E-mail : ewhaalum@ewha.ac.kr)





표지 사진
황규호(도교 교육학과 교수)
대학원 별관의 가을(2016)

편집위원

남상택(물리 74, 총동창회장)
이명경(부용 77, 총동창회 부회장)
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
한미경(물리 88, 총동창회 총무)
이영희(사학 88, 총동창회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편집위원)
정진숙(행정 88, 편집위원)
조성아(정의 88, 편집위원)
최지영(사학 88, 편집위원)

발행 2019년 10월 10일 발행

발행인 남상택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전화 02-3277-3386-7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편집 문화정원

인쇄 제이오

비매품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9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02 2019년 총동창회 대바자회

상생과 나눔의 실천으로 더 즐거운 모교 장터



02

06 특집 / 이화가 배출한 여성 독립운동가들

이화역사관, 유관순 열사 미공개 사진 2점 발굴



06

09 이화비즈

동학식품 대표 계난경 동창

14 모교사용설명서 1

이화의 상징과 UI(University Identity)



17

17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성 제3호 검사장 노정연 동창



22

22 총동창회 소식

이화학당 이사장 초청 오찬 외

25 선교부 소식

화요 기도모임에 네 명의 동창 선교사 방문

26 모교 소식

'글로벌 과학연구 선도 거점기지' 연구협력관 봉헌식 개최 외

30 이화인 모임 탐방

광복절 기념 합창대축제 참가한 남가주동문합창단

34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실내환경과 에너지 분석 기업 아틀라슨 대표 박지현 동창

38 선교지에서 온 편지

현지 언어로 된 성경을 만들며

40 모교사용설명서 2

변경되거나 신설된 학과가 궁금해요 2

42 축하합니다

민병주 동창 외

43 대학(원) 소식

자연과학대학 외

47 과학부(원) 소식

불어불문학과 외

52 지회 소식

남가주(LA) 지회 외

61 동창 근황

이경순 동창 외

72 동창이 펴낸 새 책

『모든 삶은 아름다워야 한다』 외



30

2019년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대바자회



상생과 나눔의 실천으로 더 즐거운 모교 장터

총동창회에서는 9월 26일(목) 총동창회 기금 마련과 이화 동창의 친목 도모를 위한 가을 바자회를 열었다. 따사로운 가을 햇볕 아래 60여 개 학과와 4개 대학원, 8개 국내 지회가 참가한 가운데 모교 생활환경관과 학생문화관 앞마당에 70여 개의 부스가 펼쳐졌다. 오전 10시 성혜옥(영문 70) 선교부장의 기도를 시작으로 바자회의 문을 열었다. 이날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순영·이경숙·김영주 총동창회 고문 그리고 김혜숙 모교 총장과 최대석 부총장 및 많은 이화 동창들이 행사장을 찾아 격려하였다.

입구부터 펼쳐진 먹거리 장터

새벽 6시 반부터 정성껏 준비한 물품을 실은 동창들의 차량이 행사장을 분주히 오고가며 부스를 준비한 덕에 큰 혼잡을 피할 수 있었다. 일찍부터 출동한 때문인지 시장기를 달래기 위한 김치전과 야채전이 시작부터 불이 났다. 바자회장 출입구에는 조형예술

대 녹미회와 물리학과에서 각종 전과 김밥, 어묵, 떡볶이, 식혜, 커피 등으로 먹거리 존을 만들었다. 초록색 앞치마를 두른 8명의 녹미회 회원들은 ‘녹미당’이라는 간판 아래 빈대떡과 동그랑땡을 기름에 구우며 바쁜 손을 움직였다. 준비한 김밥이 30분 만에 동이 났단다. 조형예술대 회장 신영선(장미 88) 동창은 “SNS로 역할 분담하고 의논하며 각자 준비해 왔어요. 3주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서 녹미당이라는 이름도 짓고 포스터도 만들었어요. 세트 메뉴도 알차게 준비했지요”라며 밀려드는 주문에 즐거운 표정이다. 바로 옆 부스 물리학과는 재료가 상할까 봐 새벽 3시까지 야채를 다듬어 김치전과 부추전 각 100장 분량을 준비했다. “물리학과의 희생적인 세프들이 없었으면 굽을 뻔 했다”는 격려에 “더운 날씨에 땀을 뺄낄 흘렸는데 동창들이 많이 호응해 주셔서 기쁘다”며 뿌듯해 했다. 이 밖에도 고향인 아산의 명물 호두과자를 새벽에 가져와 내놓은 정치외교학과, 계란 샌드위치와 김밥을

준비한 피아노과와 소떡소떡을 내놓은 생활미술과가 각종 다양한 음료와 함께 먹거리를 제공해서 허기진 이화 동창들의 배를 달랬다.

선주문 판매 방식으로 성과 올려

사회학과에서는 박춘호(사회 70) 동창이 강진으로 귀농해서 직접 농사지은 쌀과 잡곡류, 유자즙, 여주차와 갓 짜낸 참기름 등 다양한 농산물과 천연염색 스카프로 향토의 멋과 맛을 보여 주었다. 식품영양학과의 '정수네 농장'에서는 강원도 원주에 귀농한 이정수(가관 73) 동창이 만든 생들기름, 조선간장, 청국장, 고추장아찌 등을, 무용과에서는 사찰음식연구원의 스님이 만든 막장류를 작년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도 내놓았다. 철학과에서는 여성농업인과의 콜라보 제품으로 춘천 소양강 잣을 판매하였고, 이 밖에도 각 과에서는 누룽지, 매실액, 맛간장 등 각종 친환경 수제 먹거리 제품을 선보였다.

몇 년 전부터 총동창회 바자회에서는 선주문 판매 방식으로 성과를 거둔 곳이 늘고 있다. 국어국문학과는 지난 3월부터 인견이불을 동대문시장에서 주문 제작하여 중간 마진을 없앤 저렴한 가격으로 이미 100여 개 판매 완료했다. 글자가 커서 알아보기 쉬운 패션 시계도 이미 사전 판매로 100여 개 이상 팔았다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순영·이경숙·김영주 고문, 김혜숙 총장 등 많은 동창들이 바자회장을 찾았다

조현대 녹미회와 물리학과 동창들이 만든 먹거리는 동창들의 출출한 배를 채워 주었다



며 여유로운 미소를 띈다. 행정학과는 올해도 경남 고성에서 지인이 재배한 참깨, 참기름, 들깨, 들기름을 준비했다. 단골이 생겨 3년째 산던 동창이 계속 사고 있다면서 올해는 추석 전에 주문해 온 경우가 많아 사전 판매한 분량까지 이미 100병 넘게 팔았다고 한다. 늦게 온 동창은 물건이 소진되어 내년을 기약하며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전공별 특색이 드러난 이색 상품

전공별 특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구역은 단연 음악대학과와 조형예술대, 디자인대학원 구역이었다. 조형예술대 구역에서는 동창 작가들이 전공을 살린 상품이 눈에 띠었다. 서양화과에서는 '유명 작가 작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글귀 아래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창 작가들의 원화를 기증받아 판매하고 있었다. 서양화과 회장 채정수(서양 83) 동창은 "일반인들에게 유명 작가의 작품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며, 판매한 기금은 녹미회에서 후원하는 장학금으로도 쓴다"고 했다. 도예과에서는 세 명의 동창 작가가 생활도자기와 컵 화분, 도자기 머리핀 등 액세서리 등을 직접 만들어 내놓았고, 장식미술과에서는 동창 작가가 직접 디자인 하여 베트남에서 제작해 와 가격을 낮춘

고급스러운 자개 쟁반을 내놓아 호응을 얻었다. 섬유예술과는 고급 원단으로 제작한 스팽글 솔더백과 직접 제작한 손뜨개 목걸이 등 세련된 디자인 제품을 내놓아 동창들의 발길을 머물게 했다.

음악대학 구역에서는 이국적인 볼거리가 가득했다. 성악과 회장인 정병화(87) 동창은 “바자회를 좀 더 풍성하게 꾸미기 위해 아끼던 소장 품을 가지고 나왔다”면서 예쁜 유럽식 인형과 이국적인 앤티크 소품들을 내놓아 오가는 이의 발길을 멈추게 하였다. 관현악과와 종교음악과에서는 색다른 아나바다 상품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합창단 연습 때마다 단원들로부터 기증품을 모아서 해마다 바자에 내놓고 있다는 김축복(종음 94) 동창은 새 제품도 많고, 이국적인 소품도 많아서 아나바다만큼 기금 모금에 효율적인 것이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낸다. 이밖에도 한국음악과에서는 부회장 기숙희(한음 01) 동창이 폴란드 공연 갔다가 사와 기부한 산양유 크림을 인터넷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완판시켰다. 바자회에서는 보기 드문 물품인 반짝반짝 비즈 장식이 달린 화려한 무대 연주복도 등장했다. 피아노과 회장 김문정(피아노 87) 동창이 직접 운영하는 무대 의상 속의 상품을, 대여와 판매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함께 만들고 함께 팔며 동창간의 우애와 친목을 다졌다

음악 연주활동을 하며 바자회를 위해 물품을 준비한 음대 동창들의 활약상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또한 디자인대학원에서는 임영미(디대원 15) 동창이 수제 수세미 와주머니 등 아기자기한 제품을 만들어 참가하였다.

홍보와 판매, 일석이조의 효과

한편 이번 바자회에서는 동창이 창업한 회사 제품의 참가가 돋보였다. 문현정보학과는 “판매 전 제품은 문현정보학과 동문이 운영하는 기업 제품입니다”는 광고 아래 세 곳의 동창 회사 제품을 내놓았다. 해오름 식품의 유기농 시리얼, 제주 산 친환경 원료 100프로로 만든 ‘제주인디’ 화장품, 계난경(문정 88) 동창이 개발한 미니멜츠 빙 구슬아이스크림이 그것이다.

또한 컴퓨터공학과에서도 동창 창업 회사 세 곳이 참여했는데, 작년에 이어 이주연(컴공 88) 동창이 창업한 ‘아이두비(IDOBE)’에서 누룽지 칩을 들고 나왔다. “모교 생협에도 들어가 있는데, 올 초 총장님께서 3종 세트를 단체 선물용으로 다량 구입해 힘을 실어 주셨지요.” 씹을수록 고소하고 건강한 맛에 자꾸 손이 간다. 마들렌이 많이 나갔다면 즐거워하는 박상원(컴공 12) 동창은 홈베이킹 키트 사업을 하는데, 젊은 감각을 살려 흑당 버블 밀크티와 갖가

지 마들렌을 준비해 와 인기를 끌었다. ‘살롱 드 사봉’ 대표 원은희(겸 공 87) 동창은 천연 화장품, 비누, 세제를 제작하여 내놓았는데, 특히 받은 ‘철수와 영희 샴푸’는 10대들을 위해 정수리 냄새 걱정을 없앤 베스트셀러라고 한다.

제약학과에서는 ‘약사가 개발한 붙이는 보톡스 팩’이라는 광고와 함께 ‘셀프톡스’를 가지고 나왔으며, 체육학과는 박경실(체육 78) 동창의 파고다교육그룹에서 출자한 ‘강아지 고양이 뛰명냥’이라는 반려동물 동결건조간식 제품을 내놓았다. 정치외교학과에서는 경남 진주의 동창 회사에서 직접 제작해 온 도라지 진액을, 동창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직접 볶아 3+1으로 저렴하게 내놓은 커피 원두와 함께 준비했다. 장식미술과에서는 동창 기업에서 만든 곰표 밀가루 쿠키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수학교육과에서는 동창 가족이 운영하는 보림출판사에서 고급 소장용 커팅북을 소개하여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상생과 나눔의 뜻깊은 실천

한편 총동창회는 이날 바자회 때마다 큰 인기인 저염 백명란 외에도 맛간장, 임원이 직접 집에서 담근 된장, 유산균 잇백, 색동가방, 다용도가방, 포스트잇, 봉투, 주방용 도



총동창회가 판매한 물건들, 특히 오브엠이 기부한 구두는 완판을 기록했고, 백명란, 수제 맛간장, 된장도 인기를 끌었다

품으로 관심을 모았다. 특별기획 상품전을 기획한 총동창회 김곡미(생미 87) 사업부장은 우수 상품들을 이화 재학생과 동창들이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며 “상생과 나눔 경영을 하는 기업은 더 많은 이익과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회사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총동창회는 이화 가족들을 위한 기부 문화를 더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기획의 뜻을 밝혔다. 바자회 판매 수익금은 이화 동창들을 위한 총동창회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발족한 아시아지회 회장 박진경(교공 91) 동창도 바자회장을 찾았는데, 내년에는 꼭 참가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자기 등을 판매했다. 특히 5가지 색깔의 초경량 우산과 구두와 화장품 등 특별 기획 상품이 주목을 끌었다. 오브엠 대표 이소연(성악 87) 동창이 총동창회에 기부한 구두와 앵클부츠는 매대를 열자마자 큰 관심을 끌며 510쪽 완판의 기록을 세웠다. 수업이 끝나고 바자회장을 찾은 재학생들은 백화점 브랜드라 쉽게 구매하지 못했던 구두라면 면접보러 갈 때 신고 가겠다고 기뻐했고, 교직원들은 자녀한테 선물로 주겠다며 행복해 하였다. 이화 동창들도 디자인이 예쁘고 편한 데다 가격도 착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화장품 BLUE LAKE 대표 박현수(섬예 88) 동창이 기부한 ‘7 Seconds Speed White’는 미국 월마트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우수 제

여름날처럼 더웠던 한낮, 더위 먹었다며 1만 원 하는 스카프를 1,000 원이라 부르며 깔깔 웃던 동창들은 5시 마감을 앞두고 30% 할인, 투플러스 원을 외치며, 혹은 남은 물품을 들고 직접 방문 판매에 나서기도 하며 끝까지 행사장을 지켰다. 함께 만들고, 함께 팔며, 수익금도 내고 동창간의 우애도 다지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동창들은 행사장을 마무리한 뒤 뒷풀이 장소에서 서로의 수고를 자축하는 시간을 이어갔다.

글·이영희(사학 88, 총보부장)

최지영(사학 89·이화동창 편집위원)

이화역사관, 유관순 열사 미공개 사진 2점 발굴

모교는 창립 133주년을 기념하여 5월 21일(화) 유관순 열사의 이화학당 시절 미공개 사진 2점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화역사관이 특별기획전 '이화의 독립운동가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굴한 사진으로, 유관순 열사의 이화학당 보통과, 고등과 재학 시절의 사진으로 추정되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원본 공개 기간이 끝나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직접 보지 못하는 많은 이화 동창을 위해 본지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미공개 사진과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6명의 이화의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유관순 열사의 보통과 재학 시절과 고등과 재학 시절 모습. 국내 미공개 사진이다

모교는 창립 133주년을 기념하여 5월 21일(화) 유관순 (1902~1920) 열사의 이화학당 시절 미공개 사진 2점을 공개했다. 이화역사관(관장 정혜중)은 3·1운동 100주년과 이화 창립 133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전 '이화의 독립운동가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장 사진첩 『Ewha in the Past』를 정리하는 중 2점의 유관순 열사 사진을 발굴했다. 총 89권에 달하는 사진첩에는 1886년 이화학당 창설 시기부터 1960년 대까지 학교 관련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다. 특히 1권부터 8권까지는 이화학당 창설 시기부터 1945년 해방 이전 이화 여자전문학교 시기의 사진이 정리되어 있으며, 유관순 열사의 사진은 1번과 4번 사진첩에서 발견되었다.

모교 사학과 교수진들의 사진 검토를 통해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유관순 열사의 이화학당 보통과, 고등과 재학 시절의 사진으로 추정된다. 두 사진 모두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사진 속의 모습과 사진 앞뒤로 정리되어 있는 사진들의 연대로 추측하건대 첫 번째 사진은 유관순 열사의 이화학당 보통과 입학 직후(1915~1916년)로 추정되고, 두 번째 사진은 고등과 재학 시절(1918년)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유관순 열사는 1915~1916년 경 이화학당에 편입하여 1918년 이화학당 보통과를 졸업했고, 1918년 4월 고등과 1학년에 진학하여 1919년까지 모교를 다녔다. 1920년 9월

28일 유관순 열사가 영양실조와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하자 이화학당 선생이었던 월터(이화학당 5대 당장)는 유관순 열사의 시신을 수습하여 일제 경찰의 감시 속에서 장례를 치렀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통해 일제에 항거한 유관순 동창의 열사로서의 모습 외에 동기들과 함께 생활하고 학습한 소녀로서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아쉽게도 유관순 열사의 원본 사진은 5월 24일(금)까지만 공개되어,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특별전에서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특별전에는 이화에서의 배움을 토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6명의 이화인(신마실라, 이화숙, 홍애시덕, 황애시덕, 신의경, 최선화)의 사진과 유족 기증 유물이 함께 공개되어 있으니 이들의 외침을 돌아보는 것 만으로도 ‘대한독립’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길 수 있다.

신마실라(1892~1965, 이화학당 대학과 1회 졸업) 동창은
이화학당의 교사로 재직하다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될 여성 대표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계획이 무산되자 미국으로 건너가 대한민국 독립을 촉구하는 순회강연 및 한인 구제회 활동 등을 전개하며 의연금을 모았고 자신의 재산을 독립 자금으로 기부했다.

이화숙(1893~1978, 이화학당 대학과 1회 졸업) 동창은
이화학당의 교사로 재직하다 1919년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원 참사로 활약하며, 상해 대한애국부인회 회장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등 임시정부를 지원했다. 대한적십자회에서도 활동하다가 1920년 독립운동가 정양필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지속적으로 독립을 위한 후원활동을 전개했다.

홍애시덕(1892~1975, 이화학당 대학과 7회 졸업) 동창은
이화학당 교사로 근무하다가 1920년 이화 7인 전도대로 계몽운동을 펼쳤다. 미국 스캐릿(Scarritt) 대학 신학부를 졸업하여 한국 최초의 여성 목사가 되었다. 조선여자기독청년회(YWCA) 부회장을 역임하고 1927년 근우회 결성 준비에 참여하는 등 기독교를 통한 여성의 권리옹호 및 항일구국운동에 힘썼다.



신마실라 동창의 이화학당 증등과 재학 시절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이화숙 동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시절
(이화숙 동창은 왼쪽 첫 번째, 1919년)



이화 7인 전도대 결성
(홍애시덕 동창은 뒷줄 왼쪽 첫 번째, 1920년)



황애시덕(왼쪽) 동창과 제자 최용신(가운데)



조선YWCA 제2회 여름수련회 기념사진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신의경 동창, 1923년)



최선화 동창의 이화여전 재학 당시 망월사 소풍 기념사진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1932년)

황애시덕(1892~1971, 이화학당 대학과 10회 졸업) 동창은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평양 숭의여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비밀결사대 송죽회를 조직했다. 1918년 일본 유학 중 2·8
독립선언에 참여했으며, 1919년 귀국 뒤 대한민국 임시정
부를 지원하는 대한민국애국부인회로 활동하다 검거되어
3년간 옥고를 치렀다. 여성계몽운동, 농촌계몽운동에 헌신
하며 광복 후에는 3·1여성동지회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한
여성들을 규합했다.

신의경(1898~1988, 이화여자전문학교 문과 1회 졸업) 동
창은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활동했으며 이 활동으로 대
구형무소에서 1년간 옥고를 치렀다. 1922년 계몽운동, 여
성운동을 전개한 조선YWCA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일
본 도호쿠 대학을 졸업하고 이화여전에서 3년간 교수로 재
직하며 역사를 가르쳤다. 광복 후에는 과도정부 입법의원
직을 맡았고, YWCA 재건 운동에 헌신했다.

최선화(1911~2003, 이화여자전문학교 문과 5회 졸업) 동
창은 졸업 후 이화여전에서 영문 타자 과목을 가르쳤으며
1936년 상해로 망명했다. 중국 광주에서 독립운동가 양우
조와 결혼한 후 한국독립당, 한국혁명여성동맹 등에서 활
동했으며 중경에서 대한애국부인회 재건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을 했다. 광복 후 이화여대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하다가 1968년 비서학과(현 국제사무학과)를 창설하면서
자리를 옮겨 1976년 정년퇴임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끝까지 민족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
하고 희생한 이화 동창들은 이화는 물론 한민족의 자존심
이었다. 이화인들은 대한인이자 지성인으로 사명을 품고
계몽운동, 나아가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유관순 열
사 외에도 이화가 배출한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이화
동창들이 기억하길 바란다. 5월 21일(화) 막을 올린 이화역
사관 특별기획전 '이화의 독립운동가들'은 이화역사관 기
획전시실에서 2020년 5월 16일(토)까지 이어진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 사진 제공·이화역사관



미니멜츠는 국내 구슬아이스크림 대표 브랜드다. 미니멜츠 구슬아이스크림 제조사 동학식품은 1997년 창립된 회사로, 대표 계난경(문정 88) 동창은 2009년 세상을 떠난 남편의 뒤를 이어 현재 어떤 대기업보다 훌륭하게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처음 회사를 맡았을 때의 두려움도 잠시,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제품 개발로 현재 매출 250억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켰다. 지난 6월 29일(토)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하는 모범여성기업인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 기업의 경영인으로서 회사를 꾸준히 성장시킨 힘은 무엇이었는지, 또 성공적인 여성 CEO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들어보기 위해 미니멜츠 본사 사무실로 계동창을 찾아갔다.

- 미니멜츠 구슬아이스크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또 구슬 아이스크림은 제조 과정이 일반 아이스크림과는 차별화된다고 하는데

생산 및 판매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동학식품을 운영하기 전에는 봉제완구를 제조해 10여 개국에 전량 수출하던 회사였어요. 남편은 미국 현지 바이어 미팅과 여러 도시의 판매점 견학을 위해 미국에 자주 출장을 갔는데 일정에 동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완구 제조 같은 노동집약적인 사업이 아닌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없을까 고민하던 때였는데, 뉴올리언스의 테마파크 박람회에서 마침 눈에 들어온 것이 미니멜츠 구슬아이스크림이었어요. 단순히 수입해서 국내에 팔기만 하기는 싫었어요. 미국 본사에서 기계를 공수해 와서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데 합의한 미국 미니멜츠와 계약을 맺고 1997년부터 국내에서 처음 구슬아이스크림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초기엔 놀이동산이나 가야 먹을 수 있는 고급 아이스크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건 구슬 아이스크림의 원료 자체가 고급이기도 하지만 IQF(개별급속냉동)라는 특수 제조공법으로 만들어지고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액화질소의 단가도 워낙 비쌌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기도 했고요. 이 제품을 납품하려면 영하 40도를 유지할 수 있는 특수 냉동고까지 같이 제공해야 했거든요. 그러다가 2012년 영하 18도의 일반 냉동고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도록 배합과 성분을 달리한 '슬로우 미니멜츠'를 개발하면서 제품도 다양해지고 판매점도 늘어나서 쉽게 사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되었어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슬로우 미니멜츠' 기술은 '구슬 아이스크림 조성물에 대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아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보관과 유통이 수월해진 덕분에 4~5년 전부터는 학교 급식이나 군부대에도 납품하게 되었어요.

●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비롯해 2014년 모범여성기업인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표창, 2015년 제19회 여성경제인의 날 국무총리 표창 등 여러 차례 상을 받았는데 어떤 점이 수상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규모나 브랜드 면에서 이상적인 여성 기업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큰 규모는 아니어도 잘 알려진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자체 공장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유통, 판매, 수출까지 한다는 점에서요. 또 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투자를 통해 발전된 기술력을 토대로 다수의 특허 및 인증을 받은 데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부분도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09년 안성에 제조 공장을 재건축한 뒤, 2016년 100억 원을 투자해 음성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을 새롭게 준공한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지요. 투자를 하려면 배포도 커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안정을 추구하기보다 과감하게 도전하는 편이에요. 기존의 안성 공장을 재건축하기로 결정한 것은 HACCP(식품안전 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식품 회사에게 그 인증은 아주 중요한 자격 조건이거든요. 안성 공장이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자동화 설비를 갖춘 뒤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업체로 지정되었어요. 또 꾸준한 연구 개발 끝에 2013년부터 새롭게 출시된 빅구슬은 안성 공장의 설비로는 생산할 수 없었고 새로운 시설의 공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음성 공장을 준공하게 되었지요. 이곳은 안성 공장보다 5배나 넓은 대지에 건물도 4배 이상 큰 규모라 공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가



충북 음성 공장 준공식에서 인사말 중인 계 동창

많아요. 생산 시설도 식품생산 공장이 아니라 IT기업의 반도체 공장을 방불케 할 만큼 청결하고 자동화된 최신 설비가 갖춰져 있지요.

● 최근 태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시장 개척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미국 본사에 브랜드 사용료만 일정액 지불하고 있고 기술력은 오히려 저희가 더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구슬아이스크림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저희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한 제품의 역수출이 논의되고 있고, 저희 기술을 미국에서 배워가고 있지요. 그 기술력 덕분에 아시아 지역의 미니멜츠 판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캐나다, 호주, 유럽에서는 저희가 판권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1999년부터 '슬로우 멜츠'를 만들 수 있는 원료 조성물을 수출하고 있어요. 수요가 많은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지에는 완제품을 수출할 뿐만 아니라 매장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처럼 미국 본사와는 아주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원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셈이지요. 특히 국제식품박람회 같은 행사가 열리면 저희 회사도 함께 초대되어 미국 본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현재 저희 제품은 전 세계 30여 개국에 판매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판권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쉽지 않았어요. 낮은 생활수준이나 특수 냉동컨테이너 사용 등 수출 통관 비용을 감안하면 고가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시장성이 밝지 않았어요. 특히 동남아 지역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된 할랄 식

품만 먹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수출뿐 아니라 높은 매출을 올리려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했거든요. 저희도 2014년에 할랄 인증을 받긴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정식 할랄은 훨씬 더 엄격해요. 예를 들면, 생산 공장에 무슬림 직원을 2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든지, 배관 세척에 모래를 써야 한다든지 하는 조건은 저희가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국제식품전시회 때마다 수출이 안 되는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 의사를 밝히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각도에서 타진해 보다가 태국 현지에 직접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내년 1월 완공 예정으로 태국의 촌부리라는 지역에 공장을 짓는 중이에요. 그 공장에 성형 기계설비와 기술을 제공해 주고 저희만의 노하우가 들어간 원재료 조성물을 판매해 생산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식으로 그쪽 파트너와 계약이 진행되었어요. 태국이 거점이 되면 무슬림들이 많은 동남아 주변 나라에도 훨씬 싼 가격에 많은 양을 수출할 수 있게 될 거예요.

● 구슬아이스크림은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향후 계획이나 구상하는 모델이 있나요?

대표 제품인 '미니멜츠 구슬아이스크림'은 10 가지 맛의 종류가 있고, 일반 냉동고에서도 보관 유통이 가능한 '슬로우 멜츠'와 '미니멜츠 빙' 역시 다양한 맛을 선보이고 있어요. 기존의 구슬아이스크림과는 다르게 구슬 크기를 키운 '미니멜츠 빙'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구조의 식감을 최대한 살린 제품이에요. 롯데제과와 협작해 빙구슬 형

태로 만든 ‘미니멜츠 빅 수박’과 ‘미니멜츠 스크류’, 오리온 아이서와 협작한 ‘아이서 빅구슬’ 등도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구슬아이스크림이 확실히 독특한 아이템이긴 하지만 다른 빙과 업체에서 선뜻 투자하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회사에 협업 제의가 들어왔어요. 대기업과의 협업이 조심스러워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이 아니라 ODM(생산자개발방식)으로 생산 유통되는 조건, 즉 ‘미니멜츠 롯데’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시판하게 되었어요. 당당히 대기업과 브랜드를 나란히 쓰게 된 것이죠. 또 설빙에서도 12월 비수기에 ‘구슬 설빙’이라는 제품으로 대박을 쳤어요. 우리 구슬아이스크림에 미니스탑의 소프트아이스크림을 얹어먹는 제품도 얼마 전부터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고요. 최근엔 빅구슬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으면 그날의 비타민C가 충족되도록 한 제품을 유명 제약회사와 함께 개발 중이에요. 한번은 정관장에서 홍삼 원액을 빅구슬 형태로 만들어보자는 제안도 있었어요. 일본의 어느 회사에서는 와사비를 정량으로 먹을 수 있도록 구슬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냐고 문의해 오기도 했고요. 20년 이상 축적된 동학식품의 노하우를 이용해 만든 채소 세이크도 좋은 아이템이죠. 현재 다방면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어요.

● 2009년부터 지금까지 대표 자리에 있으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없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점이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기존의 안성 공장을 재건축하기로 결정한 일이에요. 당시 에버랜드에서의 판매 입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식품산업대전에서 미니멜츠 관계자들과 함께

찰권을 따기 위해 노력했지만 매번 다른 구슬아이스크림 회사와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가 2009년 말 입찰에 성공해서 2010년부터 납품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 겨울에 안성 공장이 재건축 상태였던 탓에 납품 기일을 맞추느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놓아야 했어요. 그때가 가장 큰 모험이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대표가 되자마자 직원들의 월급을 30%가량 파격적으로 인상한 일이에요.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보고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까?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직원들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우가 달라지자 직원들도 성심을 다해 일해 주었어요. 주변에서 “회사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공장 허문다, 절수 따려고 직원 월급이나 올려준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 두 가지를 극복하자, 초기보다 매출이 서너 배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 이처럼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 아이를 키우는 주부였다가 갑작스레 한 기업의 대표가 되자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정신없

있어요. 그때 진심어린 마음으로 100여 명의 직원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아요. 사업은 인간적인 교감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명의 각 부서장들에게도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편이에요. 또 남편 해외출장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사업적인 안목을 기른 것도 도움이 되었어요. 회사에 고민거리가 생기면 저에게 조언을 구했던 남편 덕분에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도 아니었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 남편이 저를 나름 훈련시킨 셈이었네요. 한 해 두 해 사업이 성공하고 확장되다 보니 나름 성취감도 느끼고 일이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기보다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과 성향도 한몫했고요. 뭔가 안 풀리는 문제에 맞닥뜨려도 이리저리 궁리해서 풀어내려는 도전 의식도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남편 사업 물려받았으니 가끔 출근해서 형식적으로 자리나 지키겠지. 가정주부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 ‘기왕 하는 거 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더 결단력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갔고,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할 때 더 믿고 맡겼어요. 실패해도 남 탓하지 않고 최종결정자로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마음



제9회 서울여성경제CEO MBA교육 참가자들과 함께

가짐으로 임했어요. 안전하고 쉬운 길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신제품을 개발해 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는 주변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해 주는 것 같아요.

● 앞으로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 여성 CEO로서 진심어린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느 자리에 가나 초심과 중심과 진심이라는 ‘삼심’을 강조해요. 사업이 성공했다고 해서 처음 시작할 때 먹었던 마음 잊지 말고,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혼들려서는 안 되는 자기만의 중심을 지키며, 누구를 대하든 무슨 일을 하든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는 이화 후배들도 꼭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2019 이화가족 성탄예배

12월 5일(목) 오후 3시 모교 대강당에서 총동창회 선교부 주관으로 성탄예배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화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성탄을 기다리고 축복하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빨간수첩에서 곰돌이 캐릭터까지 이화의 기념품

교표 배지가 학생의 정체성을 나타내던 때가 있었다. 예전엔 모교 졸업 반지를 끼고 가방 속에서 빨간수첩을 꺼내는 사람을 보면 이화 동창임을 짐작했다. 요즘은 교명(EWHA)과 학과 이름이 새겨진 과잠(학과 점퍼)이나 검정 롱패딩을 입은 재학생들이 신촌 거리를 뒤덮으며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시대가 지나가면서 학교 상징물이 다양하고 세련되게 진화하고 있다. UI(University Identity)는 대학의 핵심 브랜드 가치를 언어적,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UI를 활용한 상품은 해외에서 이미 일반화된 것인데, 버클리(Berkeley) 등 해외 유명 대학교 이름이 새겨진 후드티를 여행 가서 하나씩 사들고 온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념품이 하나의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학교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는 좋은 홍보 수단이 되고 있다.

모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학교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화의 고유한 이미지와 비전을 담은 UI를 구축하여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내외 소통을 하는 데 공들여 왔다. 모교의 상징 마크와 로고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정비 하고, 시그니처, 전용 서체 및 슬로건을 개발하여 모교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 모교 사용설명서에서는 모교의 UI와 그것을 활용한

상품인 '이화굿즈'에 대해서 소개한다.

심볼마크와 전용 서체

심볼마크: 모교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이다. 기존 교표 모양을 토대로 전신화 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하였다. 전체적인 이미지인 배꽃의 다섯 잎새 안에 위쪽에는 십자가가, 아래쪽에는 태극이 있다. 1886과 1945 숫자는 각각 이화학당 창설 연도와 종합대학교 설립 연도를 나타낸다. 일제 총독부는 민족적 상징인 남대문과 태극을 없애 십자가만 남게 하고, 소재도 순은에서 납으로 바꾸게 하는 등 교표도 민족의 수난과 함께하였으나, 해방으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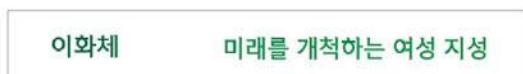
로고마크: 학교 명칭을 통해 모교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심볼마크와 함께 UI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이다. 국문과 영문 두 가지 타이프로 지원되고 있다.



시그니처: 심볼마크(교표 모양)와 로고마크(학교 명칭)를 조합해 놓은 것으로 국문, 영문, 국/영문 조합형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기능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좌우 조합, 상하 조합 시그니처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전용 서체(이화체): 모교를 대표하는 고유한 문자 표현 요소라 할 수 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전달력을 지닌 형태로서 주로 제목 서체에 사용을 권장한다. 국문과 영문 이화체를 비롯하여 심볼·로고마크와 시그니처는 모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상업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슬로건 : 이화여대의 새로운 비전을 전달하기 위한 시각 커뮤니케이션 요소로서, 모교 구성원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학교 곳곳에 걸려 있는 'EWHA TOGETHER TOMORROW' 슬로건은 2017년 김혜숙 총장 취임 이후 새롭게 선포된 것으로, 알파벳

의 두운을 맞추어 이화인이 함께(TOGETHER) 만 들어가는 빛나는 내일(TOMORROW)을 표현하였다. 슬로건의 전용 색상은 새로운 생명력, 미래를 상징하는 라이트 그린과 이화의 대표 색상인 이화 그린이 만나 도약하여 하나 되는 형태를 조합한 것이다. '미래를 개척하는 여성 지성' 공동체로서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도전하는 이화의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한다.



색상 : 모교를 대표하는 초록색은 이화를 떠올릴 때 심볼마크와 함께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이다. 일명 '이화 그린' 색상은 학교를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각 단과대학마다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 색을 갖고 있다. 1975년 처음으로 6개 단과대학에 상징 색상을 적용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는 13개 단과대학



의 신설 및 폐지를 반영하여 색상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표의 중앙에 색상에 차이를 두어 단과대학을 구별하고 있다.

기념품(이화굿즈)

요즘 학생들은 기념품을 굿즈(Goods)라고 표현하는데, 특정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모교의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이화 굿즈 개발팀을 꾸려 UI를 활용한 상품 개발에 고심하고 있다. 생협의 박경옥 차장은 “기념품을 만들 때 교표나 교명 중심으로 소재를 사용해 왔는데, UI를 부각시키면서도 좀 참신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상품을 개발을 하고자 재학생들을 상대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곰돌이 캐릭터가 만들 어졌다”면서, “공식적인 UI는 아니지만, 곰돌이 캐릭터와 배꽃 일러스트 도안을 활용한 상품의 반응이 좋아 많이 활용되면서 이제는 친숙하고 대표적인 캐릭터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설명 한다. 점차 학교 공식 행사에서도 많이 사용되어 배지는 물론이고, 배너나 공식 인스타그램에 상용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또한 교표의 경우 기념품점에서 단과대학 별로 구획을 두어 판매하고 있지만, 요즘 재학생들에게는 단과대학의 구분을 넘어서 컬러풀한 다양한 교표 형태로 인식하고 취향에



따라 선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 시대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온라인 이화기념품점에는 심볼 마크와 로고를 비롯하여 곰돌이, 배꽃, 대강당과 ECC 학교 건물 일러스트 도안 등 다양한 상징을 소재로 한 굿즈를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다.

이렇듯 UI는 구성원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확산되며 상징물로서 완성이 되는 만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니즈를 반영하여 진화하고 있다.

이화 동창수첩(빨간수첩)

빨간색 이화 동창수첩은 학교 공식 UI는 아니지만 동창들이 애용함으로써 이화 동창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동창수첩이 처음부터 빨간색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다. 1970

년대 처음 제작 될 당시에는 초록색의 재학생 수첩과 구별되 게 빨강, 청색과 밤색 등을 함께 제작했다(당시는 5,000부 발행, 정가는 100원). 이후에 선호도가 높은 빨간수첩으로만 제작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들어서 1만 부 발행을 넘기면서, 최대 3만 5,000부 까지 정점을 찍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첩 소비가 줄어들어 이젠 절반인 1만 8,000부 발행, 정가 3,000원이 되었지만 여전히 총동창회 기념품의 베스트셀러이자 이화 동창의 상징물이다. 11월 중순에 발행되어 ECC 이화기념품점(ECC 지하4 층 410호)에서는 연초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며. 총동창회 사무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3호, 02-3277-3386)에서는 연중 상시 구입 가능하다. 택배 주문도 가능하다.



글·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성 제3호 검사장 노정연 동창

법률적 지식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직업



노정연(법학 90) 동창이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에 올랐다. 지난 7월 26일(금) 있었던 법무부 신규 고등검사장, 검사장 인사 18명 중 유일한 여성이다. 노정연 신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지난해 퇴임한 조희진(전 동부지검장) 변호사와 이영주(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신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이은 세 번째 여성 검사장으로, 모교 출신 검사장은 노 동창이 처음이다.

“1990년에 졸업하고 1993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때만 해도 고시 공부를 하는 여성이 많지 않았고 여자 검사는 더더욱 흔치 않았지요. 친

정아버지가 검사였어요. 자라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던 듯해요. ‘꼭 검사가 되고 싶다’라고 보다는 ‘고시를 합격하면 검사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검사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운명적이었다고 할까요.” 노 동창의 부친 노승행(전 광주지검장) 변호사와 남편인 조성욱(전 대전고검장) 변호사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이다. 노 동창에게 검찰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검사의 업무는 크게 ‘수사-재판-집행’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나 인지 등을 통해 범죄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를 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를 한 후에는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 단계로 넘어가지요. 재판 과정에서 형이 선고되고 1심, 2심, 3심을 거치면 형이 확정됩니다. 징역형 이든 벌금형이든 선고된 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일도 검사의 역할입니다.”

검사가 다루는 분야는 다양한데 통상 특수, 공공(공안이 공공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강력, 금융, 조세, 의료, 식품, 성폭력 등으로 세분화된다고 한다.

“검사 임용 후 여러 분야를 골고루 경험하여 수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많이 배웁니다. 3~4년 차 이후 자신이 원하는 특정 분야에 집중하며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수사를 하고자 하지만 검사 개인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평검사 인사가 2년에서 2년 반마다 있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으로 발령을 받기 때문에 경제분야를 담당하고 싶어도 소속 청사정에 따라서 식품이나 의료 분야를 맡아야 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검사는 어떤 일이든 주어지면 열심히 해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어서지요.”

담당 사건마다 하나하나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도제식 시스템으로 부장이나 선배로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배워 가며 일한다고 한다. “도제 시스템이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는 아니고 다른 나라도 유사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수사 경험이라든지 지식, 축적한 노하우를 선배 검사가 후배에게 가르치고, 후배는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지도를 받으며 역량을 키워 나가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지요”

공판송무부장, 이름이 너무 어렵다. 노 동창은 부장으로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저희 부장들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일을 합니다. 대검의 부장 보직으로 기획조정부장, 형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과학수사부장, 공공수사부장(이전 공안), 공판송무부장, 인권부장, 감찰부장 등이 있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면 형사부장은 대검 산하 각 청의 형사 사건을 지휘하고, 사건 처리 통일성을 기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제가 맡은 공판송무부장은 각 청의 재판, 송무(국가 상대 소송, 공무원 상대 소송 등)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합니다.”

그동안 기획 등 여러 분야에서 일했지만 가장 오래 있던 곳은 형사부, 공판부라고 한다.

“대다수 검사들이 많이 하는 일이 형사부, 공판부 일이에요. 특수 사건이 뎅어리가 크고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사건의 거의 70~80%는 형사부, 공판부 담당이지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사건을 겪었다. 기억나는 사건 중의 하나는 예전에 북부지검 근무 때 살인미수, 감금 치상, 강간 상해 등 여러 죄목으로 구속된 피의자와 관련된 건이다. 송치된 수사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조사해 보니 자녀의 과외

선생인 피의자와 내연관계였던 유부녀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 피의자를 풀어주고 유부녀를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노 동창은 검사라는 직업이 다른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만큼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간의 경험들을 통해 체득했다.

“오랜 기간 검찰에 근무하다 나간 선배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가 검찰 조직 안에 있을 때는 많은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서 사건 관련 일반인이나 변호사로 변호 업무를 하다보면 검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막강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어떤 사람을 벌할 수 있도록 재판에 회부할 수 있고, 또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누군가를 불러 조사 할 수 있고 신체에 대한 구속,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지요. 사람이 사회생활 하다가 갑자기 잡혀 가면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평생 쌓아 왔던 사회적 관계가 한순간에 허물어지게 되지요.” 예전에는 ‘이 사람 진짜 나쁜 죄를 지었으니 구속해야지’ 하는 정의감이 앞섰다면 이제는 과연 꼭 구속 혹은 처벌을 해야 할 사안인가, 내가 정말 잘 판단한 것인가 등 신중함이 앞선다고 한다.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미한 범죄는 반성을 하는 경우 과감한 선처가 필요할 것이고, 가담자가 여러 사람일 때 주범과 보조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구분하여 경중을 가려가며 처벌을 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법조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뿐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많이 해야 하므로 검사들은 교육기관인 법무연수

원에서 수시로 직무교육을 받는다. 노 동창은 교육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다양한 분야의 책도 읽고 선배 등 검찰 내에서 뿐 아니라 다양한 외부의 조언을 들으며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제가 초임 때는 무고 사건으로 걸리기만 하면 다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게 정말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굳이 구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무고란 것이 물론 허위 사실을 고소해서 고소당한 사람에게는 큰 피해를 주고 수사기관을 농락한 죄가 있지만, 고소를 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억울한 면이 있기에 그런 부분을 깊이 헤아려 봐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얼마 전 제가 서부지검 차장을 할 때도 초임 검사가 무고로 인지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더라고요. 빌려준 돈을 10년 넘게 못 받자 이미 시효가 지났음에도 최근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썼으니 무고로 인지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처벌하겠다는 후배에게 돈도 못 받아 억울한데 이것까지 인지하겠다고 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설명했어요. 형식적인 사건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억울한 부분도 같이 살펴보자는 것이지요.”

검사 직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가녀린 이미지의 노 동창에게 ‘강한 인상’의 피의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고 물었다.

“하긴 초임 때는 ‘간 본다’고 하지요. 피의자가 뻔한 거짓말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옆에 있는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검사 어디 갔냐’ 묻기도 하고… 그럴 때는 증거를 들이대며 차분하게 따집니다.(웃음)”

20여 년 전인 1996년, 우리나라 검사 1,000여 명 중 여검사는 고작 12~13명이었다. 검찰 조직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눈에 띠는 존재가 될 만큼 극소수였다. 여자 동기는 70~80명 중 2명이었다. 지금은 달라졌다. 전체 검사 2,100명 중 여자가 660명으로 20년 새 30배 이상 인원이 증가했다. 사법시험에 없어졌지만 2000년대 중반 사시 합격자를 대폭 증원한 후 여검사가 급증했다. 최근에는 기수별로 여검사가 40~50%에 이른다.

법학과 고시반 솟을관의 추억

모교 법과대학은 노 동창을 비롯한 수많은 법조인을 배출해 왔다. 노 동창은 이화가 있기에 자신도 법조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저는 여중과 여고 출신이어서 대학은 남녀공학을 가고 싶었어요. 당시 법학과 최병욱 교수님이 아버지 대학 선배셨는데 아버지께서 최 교수님의 이대 법학과 고시반 프로그램에 대해 듣고 이대 진학을 강력히 권유하셨지요.”

당시 법학과는 우수 학생을 유치하여 전 학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사법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기숙사(솟을관) 입주를 제공하는 등 법조인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법학과 장학생 지원 조건이 충분했던 노 동창은 이대를 택했다. 그 때 솟을관에서 만나 함께 공부한 동기 친구들은 검사 출신 최정숙 변호사, 김지숙 부장판사, 김연화 부장판사 등으로 모두 법조계에서 활약하고 있다. 노정희(법학 86) 대법관도 솟을관 선배다.

집이 신촌이었던 노 동창은 1~2학년 때는 집에서 통학했고 3학년 때 기숙사인 솟을관으로 들어갔다. “솟을관은 오래된 석조 건물이었고 계단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2층에 올라갈 때 충격이 빼그덕 거렸지요. 앤티크 분위기로 정감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건물로 용도가 바뀐 것 같아요.” 죽도록 공부를 하다가 가끔씩 솟을관 친구, 선배들

과 함께 야식을 먹던 기억이 새롭다. 야식에는 몰래 했던 음주도 포함된다.

“모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또 후배들도 함께 열심히 하니 참 좋았습니다. 졸업 후 모교가 너무나 고마웠어요. 다른 학교에 갔으면 과연 공부를 했을까… 연애 하다 못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요.(웃음)”

노 동창의 대학 시절의 주된 기억은 ‘공부’다. 함께 공부한 친구들과 더불어 맘껏 공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이끌어 주셨던 교수님들을 잊을 수 없다.

“윤후정 전 총장님이 그때 헌법 교수셨어요. 지금 80대 후반 연세인데도 말씀하실 때 소리가 짜 렁쩌렁 울리세요. 그 당시에도 카리스마가 대단하셨어요. 고시반을 지원하려고 엄청 애썼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본받고 싶은 훌륭한 교수님이지요. 노동법을 가르쳤던 신인령 전 총장님도 계셨고요. 법대 교수님들은 법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셨어요. 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사법고시에 필요한 과목의 특강을 개설해 주시기도 했고요, 특히 최병욱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엄청 노력하셨어요. 개인적으로도 저를 이대로 이끌어 주셨기에 참 감사하지요.”

이러한 교수님들의 노력들이 열매를 맺어 모교 출신 법조인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노 동창은 모교 출신 후배 검사들을 챙기고 싶어도 검찰 조직 내에서 별도 모임을 갖기는 어려워 가끔 개인적으로 후배 검사들을 만나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한다. 모교 출신 후배들이 일을 참 잘한다며 은근히 후배들을 자랑한다.

검사를 지원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정말로 하고 싶지 않다면, 하지 말라’는 말일



서울중앙지검 부장 근무 시절 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여성 검사들 모임인 서리풀회 회원들과 함께

정도로 노 동창의 일상은 쉽지 않았다. 검사 업무를 유능하게 수행해 내는 여검사들에게 오히려 높았던 벽은 출산과 육아의 병행이었다. 지금은 90일로 늘어났지만, 당시 출산 휴가는 60일이었고, 육아휴직은 제도는 있어도 현실적으로 말을 꺼내기 어려워서 출산 휴가 후 바로 복직하는 분 위기였다. 첫 아이는 연수원 시절에 낳았지만 둘째 아이는 동부지청 근무 때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먼저 나오는 바람에 하던 일을 정리도 못하고 야근 후 집에 왔다가 12시쯤 병원에 가서 낳았고 출산 휴가 중에도 수시로 걸려오는 업무 전화를 받아야 했다.

출산과 육아라는 높은 벽 넘어서야

“검사들이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각 청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일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지요. 단위가 큰 청, 예를 들면 중앙지검에는 다솜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이는 근무자가 300명 이상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청에서는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도 많이 만들어 출근 할 때 데리고 왔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노 동창은 검사장으로서 후배들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이제는 제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후배들을 지휘, 관리하고 총장님을 보필하여 대검의 정책들이 일선에 잘 전파되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검사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 동창은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검찰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사실 검찰을 너무 미워하잖아요. 우리도 무척 열심히 일하는데… 2~3년 전 개봉했던 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화를 보니 거기에는 현실 감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반 시민이 볼 때는 1/10 정도는 비슷하겠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검사들 중에는 엇나가는 사람도 있고 잘못 행동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들이 전부 다 권력 지향적이고, 검찰이 억압적인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도를 바꾼다든지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그럴 때는 일선에 있는 검사들의 의견을 모두 듣습니다. 옛날처럼 ‘너 해, 까라면 까’ 하는 것은 없지요.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요.”

도덕성 갖췄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돌아봐야

최근에는 우수한 법조 인력들이 검사를 지원한다고 한다.

“학부 성적, 로스쿨 성적, 면접, 학부 비교과 활동, 지원자의 열망과 열정 등 모든 것을 다 봅니다. 지금은 법조일원화라 해서 판사는 7년 경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로스쿨 나왔다고 바로 법

원으로 갈 수 없어요. 따라서 로스쿨 나와서 대형 로펌 외에 선호하는 것이 검사입니다. 예전에는 1학년 때부터 법학 공부를 했지만 지금 학생들은 학부가 없기에 법을 로스쿨에서만 배우지요. 사법연수원도 이제 없어져요. 학생들이 법률과 판례 등 전문성을 배우기에는 로스쿨 3년이 매우 짧지요. 그래서 검사로 임관이 되면 현업에 바로 투입시키지 않고 1년 간 법무연수원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검찰 직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검사를 하려면 어떤 덕목이 있어야 하냐는 질문에 노 동창의 답변은 명쾌했다.

“일단은 법률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야 합니다. 법전 보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하는 것이 즐거워야 하지요. 또 검사는 남의 사생활을 굉장히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가정과 사회생활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 동창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안으로는 굳건하게 한 길을 걸어왔다. 중간에 위기가 없었느냐는 물음에는 고맙게도 잘 넘겨 여기까지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세를 낮춘다. 앞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은퇴는 언제쯤 할 예정인지 질문했다.

“은퇴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끝까지 조직과 함께하겠다 해서 그렇게 될 것도 아니고요. 다만 후배들 잘 보살피고 후배들이 일을 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돋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게는 여성 후배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부담도 있어요. 후배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계속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조성아(정외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총동창회 소식

이화학당 이사장 초청 오찬

6월 28일(금) 오후 12시 총동창회 임원진은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초청으로 이화학당 행정동을 방문해 재단에서 준비한 오찬을 즐기며 담소를 나눴다. 장명수 이사장은 “모교에 일이 많아서 몇 년 동안 총동창회 임원들을 초대 못해 아쉬웠다”며 “올해는 이대서울병원도 개원하고 재단과 총동창회가 협력해서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고 이화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이화의 동창들이 자주 재단을 찾아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재단에 감



사한다”며 “앞으로도 총동창회와 재단은 서로 만나서 모교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과 김순영·이경숙 고문 및 조종남 전 고문, 남상택 총동창회장, 김혜숙 모교 총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임원진 20여 명이 참석했다.

남가주동문합창단 공연 관람 및 모교 방문 동행

총동창회 임원진은 8월 15일(목)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 합창대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고국을 방문한 남가주동문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광

복절 기념 합창대축제>는 국립합창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기획 공연으로, 남가주동문합창단은 이 무대에서 <훨훨 날아요(Flying Free)>(Don Besig 작곡)와 <오빠 생각>(홍신주 편곡) 두 곡을 불렀다. 이 공연에는 김순영·김영주 총동창회 고문과 남상택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임원진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8월 17일(토) 남가주동문합창단의 모교 방

문에 동행했다. 남가주동문합창단원들은 모교 박물관 분청사기전을 관람하고, 이화 웰컴센터와 ECC를 돌아보는 한편, 신축 기숙사도 방문하여 남가주 지회 후원 룸을 둘러보았다. 이 자리에는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 남상택 총동창회장 및 총동창회 임원, 대외협력처 차장 최유미(디자인학부) 교수 등이 함께했으며 김순영 고문은 참석자 전원을 점심에 초대하였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구촌 어느 곳에 있어도, 이화라는 같은 공간에서 보냈다는 공동체 의식으로 한마음이 되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예술의전당 공연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어 이화인으로서 자랑스럽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최유미 대외협력처 차장은 “이화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합창단에 감사드리며, 모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보경(생미 80) 남가주 지회장은 “외국에서 모교 홍보 영상을 보면서 자랑스러웠는데, 직접 눈으로 모교의 발전상을 보니 더욱 감격스럽다”고 화답하였다. 이어서 “남가주 지회 동창들은 국제 재단을 통해 후원금을 모교로 보내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모교 총동창회에도 직접 기부금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계속해서 모교 총동창회와 해외 지회의 유대감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남가주 지회에서는 총동창회에 연회비 1,000달러를 납부했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연이 다 끝나고서야 정식으

로 갑스를 하고 모교 방문 일정까지 소화한 최고령 참가자 송은섭(정외 57) 동창은 따로 1,000달러를 총동창회에 기부하여 훈훈함을 더했다.

모교 교회에서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어 은혜로웠다는 단원들은 총동창회와 모교 대외협력처에서 준비한 기념품과 대학교회에서 마련한 십자가를 선물로 받고 뭉클한 감동을 안고 돌아갔다.



■ ‘올해의 이화인 총연합회’ 모임

총동창회는 8월 21일(수) 오후 2시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이을(가제: 올해의 이화인 총연합회)’ 창립을 위한 준

비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남상택 총동창회장, 조미숙(식영 83) 총동창회 부회장 및 총동창회 임원진, 그리고 기별 대표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1991년부터 각 과를 대표하는 동창을 뽑아(1959년 졸업자부터) ‘올해의 이화인’ 추대를 시작한 총동창회는 올해까지 29기, 약 1,200명을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했다. 그동안 기수별 모임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올해의 이화인 공동체 형성을 통해 선후배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이화인의 가치를 창출하고 이화의 궁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있어 왔다. 총동창회는 이를 수렴해 이날 모임을 준비하게 되었다. 지난 7월 18일(목)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었으며 이날은 각 기 대표를 초청해 ‘이올(가제)’ 창립의 취지를 설명하고 창립 총회일, 진행 방식, 사업 안건, 활동 방향 등을 의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10월 22일(화) ECC 아삼봉홀에서 이올 창립 모임을 갖기로 했다.

남상택 총동창회장은 “올해의 이화인은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화인들의 총

집결체”라며 “이화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경(물리 88) 총무가 준비한 올해의 이화인 역사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관람한 후 기수 대표의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고, 이어 김곡미(생미 87) 사업부장이 사업계획 및 향후 일정을 소개한 뒤 안전 토론이 이어졌다.

1기 올해의 이화인 윤미덕(영문 59) 동창부터 막내 29기 김영희(철학 89) 동창까지 기수를 대표해 참석한 올해의 이화인들은 ‘올해의 이화인의 사회 공헌’이라는 모임의 취지에 찬성하며 10월 열리는 창립 모임 전까지 기별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9월 정기임원회

9월 5일(목) 오후 2시 30분 동창회관 소회의실(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9월 정기임원회가 42명 중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29기 올해의 이화인의 후원으로 구입한 범 프로젝트를 활용한 총동창회 여름 활동 보고(6월 정기임원회, 이화학당 오찬 참석, 남가

주동문합창단 공연 관람 및 모교 방문 등행, 올해의 이화인 총연합회 창립 준비 모임, 사전 부장회의, 박성희 동창 콘서트 참석 등)가 있었고,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아시아지회 발족식이 이 9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어 지난 17대 총동창회에서 건의한 안건(동문에서 동창으로 공식 표기 변경)이 모교 평의회에서 통과되어 이를 기획처에 공문으로 정식 발

송할 예정임을 알렸다.

9월 26일(목) 총동창회 주최로 열리는 대바자회는 교내 3곳에 현수막을 이미 설치했고, 매일로도 각 동창에게 알린 상태라며, 현재 45개 과에서 목록을 제출한 상태이니 각 과에서는 보다 참신하고 획기적인 상품을 발굴해 바자회가 성황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10월 24일(목)부터 열리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11월 25일(월) 열리는

‘이화인의 밤’에 대한 공지와 함께 이날 시상할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을 안내하고 위원 추천을 받았다. 한편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이 12월 14일(토) 대강당에서 두 차례 열릴 예정이며 티켓 수익금은 국내외 선교사 후원금으로 사용되니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선교부 소식

화요 기도모임에 네 명의 동창 선교사 방문

총동창회 선교부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서 동창 선교사들의 사역을 중보해온 지 31년째. 하나님께서 선교의 열매로 세워 주신 이화여대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며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창들을 세워 주심에 감사드린다.

8월 20일(화) 화요기도모임에는 네 명의 선교사가 방문하여 사역과 주께 받은 은혜, 기도 제목을 나눠 주어서 참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앞에 나와 사역을 보고하며 은혜와 기도 제목을 나눠 주는 선교사들과 듣는 선교부원들이 함께 눈물 흘리며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이었다.

모교를 방문한 네 명의 선교사는 안미숙(철학 86, 말레이시아)·정현희(특교 98, 모로코)·김미나(외국어교육 85, 필리핀)·류보영(식영 96, 영

국) 동창으로, 각 사역지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사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자녀들의 어머니로서의 고충을 나누었다. 한국에 있었다면 겪지 않았을, 선교지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고난들이 모든 선교부원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다. 또한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도 사역지의 복음화를 위해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헌신적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체감할 수 있었다.

총동창회 선교부는 동창 선교사들에게 친정과 같이,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이 여겨지는 존재가 되어 주께 감사드린다. 매주 열리는 화요 기도모임은 방문하는 선교사들마다 큰 위로와 사랑을 느끼고 힘을 얻고 가는 모임이 되었다. 세계 각지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화요 기도모임, 동창 선교사들을 마음으로 사랑하며 품고 힘 있게 후원하는 총동창회 선교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글·이수진(조소 05)

모교 소식

‘글로벌 과학연구 선도 거점기지’ 연구협력관 봉헌식 개최

모교는 글로벌 과학연구 선도 거점기지 역할을 할 연구협력관을 완공하고, 6월 21일(금) 오전 10시 연구협력관 봉헌식을 했다. 북아현문 인근에 위치한 연구협력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 2,405m²(3,752평) 규모로, 기초과학연구원(IBS) 양자나노과학연구단과 엘텍공과대학의 전공 실험실, 연구실, 강의실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총장, 남상택 총동창회장,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준엽 관리처장의 사회와 장윤재 교목실장의 집례로 시작된 봉헌식은 김혜숙 총장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다. 김혜숙 총장은 “엘텍공과대학과 IBS 양자나노과학연구단이 이곳에서 우수한 교육 성과와 연구 성과를 도출해 이공계 연구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이화여자대학교는 여성 인재 교육, 특히 여성 과학인재 양성에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며 “현대 물리학 및 공학 연구를 위한 최적의 공간인 연구협력관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 성

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또한 연구자 및 전공 간의 소통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은 설계·감리를 맡은 DMP 건축사사무소 문진호 대표이사와 건축을 맡은 이수건설(주) 제민호 대표이사 등 4명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이날 봉헌식 2부 순서로 테이프커팅 및 내부 시설투어도 마련됐다. 테이프커팅에는 교내외 인사 10여 명이 참여해 연구협력관의 완공을 축하하고, 연구협력관이 과학 이화의 꿈을 밝히고 세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기를 기원했다.

연구협력관에 입주하는 양자나노과학연구단은 표면과 계면에서의 원자 단위 양자 효과를 제어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협력관에는 연구단의 원자 단위 실험을 위해 STM(주사터널링현미경)이 설치되며, 그에 맞게 세계 최고 수준의 무진동 설계가 적용되어



있다. 또한 연구협력관에는 엘텍공과대학 화학신소재공학전공,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의 오픈랩, 실험실, 연구실 등이 입주한다.

이번 연구협력관 완공을 통해 모교는 세계를 선도하는 양자나노과학 분야의 심층 연구와 더불어 미래 신산업분야를 이끌어 나갈 창의융합형 여성 공학 리더 양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 드니 무퀘게 2018 노벨평화상 수상자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

모교는 드니 무퀘게(Denis Mukwege)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에게 명예 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수여식은 7월 1일(월) 오전 10시 마곡에 위치한 의과대학 계림홀에서 거행됐다.

김혜숙 총장은 “콩고민주공화국의 산부인과 의사자 사회운동가인 드니 무퀘게 박사는 콩고 내전 중 무장 반란군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을 치료했으며 덕분에 수만 명이 넘는 여성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고, 이러한 업적이 여성 인권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명예박사 학위 수여 사유를 밝혔다.

드니 무퀘게 박사는 아프리카 부룬디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프랑스 앙제르 대학교에서 산부인과를 전공하고 1999년 콩고에 판지병원을 설립했다. 제2차 콩고 전쟁 때는 하루 18시간 중 10회의 수술을 진행하며 성폭행 당한 수천 명의 여성들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올해의 아프리카인, 2016년 미국 《포춘》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 50인’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드니 무퀘게 박사는 특히 2016년 서울평화상 수상 당시 이화의료원을 방문

해 의학 교육 및 진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등 모교와의 인연이 깊다.

드니 무퀘게 박사는 수락 연설을 통해 “이화여대는 여성들에게 집중하여 그들의 고등교육을 통해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긴 시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는 올바른 선택이었다. 콩고민주공화국에 자리한 판지병원과 재단 또한 이화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건강과 교육을 최우선 순위로 결정 했다”며 “미래를 지향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는 남상택 총동창회장과 교내 주요 인사, 이화의료원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관계자 등을 비롯해 모교에서 유학 중인 콩고 학생을 비롯하여 한국 유학 중인 콩고 학생 12인도 참석했다. 한편 수여식 후에는 모교와 이화의료원, 콩고 판지병원과의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교와 이화의료원은



판지병원과 학술, 연구 인력 및 행정 인력 교류, 과학 연구 및 개발 협력 및 간행물 교류 등 폭넓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모교는 195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9명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드니 무퀘게 박사는 110번째 수여자이다. 그동안 모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인사로는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2002년), 메리 매컬리스 아일랜드 대통령(2005년), 미셸 바첼렛 칠레 대통령(2009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2010년), 반기문 UN 사무총장(2015년), 케르스티 칼루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2018년) 등이 있다.

김혜숙 총장, 한·미 대학총장들과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교육 논의

김혜숙 총장은 8월 14일(수)부터 17일(토)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2019년 한미과학자대회(UKC 2019)’에 참가했다. 한미과학자대회는 한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한미과학협력센터가 한미 과학자들의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이 바꿀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학술행사이다.

‘살기 좋은 사회를 위한 스마트 과학, 공학, 보건’을 주제로 물리·화학·수학·생명공학 등 12개 기술 심포지엄이 진행된 이번 행사에 김혜숙 총장은 한국 대학 대표로 참석, 미국의 대학 총장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혜숙 총장은 8월 16일(금) 진행된 대학 리더십 포럼에서 로버트 짐머 시카고대 총장, 티모시 키린 일리노이주립대 시스템 총장, 오세정 서울대 총장, 박형주 아주대 총장과 함께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노동력>을 주제로 한 이날 토의에서 김혜숙 총장은 “과학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천, 가치, 제도, 구조에 뿌리내린 기술사회적 비전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비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이뤄지는 풍부한 상상력을 토대로 한 집단 지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화와 같은 여성대학은 고착화된 젠더 고정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학습, 교육, 연구의 기회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차이와 차별로 귀착되지 않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역량 강화의 계기를 제공한다”며 “이러한 환경을 경험하며 성장한 과학 및 공학 분야 인재들이 특유의 관점과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1,0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됐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과 세미나 등이 열렸다. 모교는 별도 상담 부스를 운영, 미국 국립보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CLA, Purdue Univ. 등 소속 한미과학자들을 대상으로 모교의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우수성을 홍

보하고, 연구·산학협력 및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다.

■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모교는 8월 30일(금) 오전 10시 교내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갖고 총 2,003명(학사 1,007명, 석사 861명, 박사 13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혜숙 총장, 남상택 총동창회장, 교무위원 등 주요 내외빈과 졸업생 및 가족 3,0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김혜숙 총장은 졸업식에서 모교 제8대 김옥길 총장의 ‘빛은 많아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구절을 인용하며 “이화인 여러분은 모두 한 줄기 생명의 빛이며, 작게는 가족, 친구, 동료 이화인, 나아가 여성 일반, 인간 일반에 대한 사랑과 유대 안에서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간 문명의 패러다임적 변화 속에 불확실성을 대처할 가장 큰 무기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개방적 태도”라며 “이화인들이 개방성과 유연성으로 무장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학점 4.3 만점으로 수석 졸업의 영예를 차지한 영어교육과 박서연 동창이 1,007명 학부생을 대표해 졸업장을 받았으며, 13개 대학원 소속 861명이 석사 학위를, 3개 대학원 소속 135명이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학전공 16학번 현예원 동창은 7학기 만에 만 20세로 졸업하며 이번 졸업식 최연소 졸업생으로 기록을 남겼다. 최고령 졸업생은 45년 만에 불어불문학과에 재입학해 학사모를 쓰게 된 이선명 동창으로, “금혼학칙이 폐지된 것을 알고 가족들이 응원해 준 덕분에 학교에 돌아올 수 있었다”며 “좋아하던 불어와 프랑스 문화에 대해 다시 배우고 감사히 졸업까지 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EGPP(Ewha Global Partnership Program) 장학생 6명을 포함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몽골, 나이지리아, 남수단공화국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학생 총 104명이 학부 졸업장을 받아, 글로벌 여성 인재의 산실로서 이화의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치외교학과 박사 학위과정을 졸업하는 주한미국대사관 의전보좌관을 축하하기 위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아름다운 선율로 이화의 위상을 드높여

국립합창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기획 공연 〈2019 광복절 기념 합창대축제〉가 2019년 8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광복절 기념 합창대축제는 3·1운동 100주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전 세계에 광복의 기쁨과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기획된 공연이다.

이날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동문합창단을 비롯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인 합창단 및 외국인 합창단 8개 팀이 국립합창단과 함께 한마음으로 우리의 노래를 부르며 감동의 무대를 선보였다. 합창대축제의 막을 여는 첫 번째 무대, 멀리 LA로부터 온 단원들을 기다리던 관객들은 화사한 흰색 드레스를 입은 서른아홉 명의 단원들이 등장하자 큰 박수로 맞았다.

남가주동문합창단의 주 레퍼토리인 〈훨훨 날아요(Flying Free)〉(Don Besig 작곡)와 〈오빠 생각〉(홍신주 편곡), 마치 살아온 여정을 대변해 주는 듯한 가사가 연륜 있는 남가주동문합창단 색채와 참 잘 어울렸다. 1957년에 졸업한 선배부터 1998년도에 졸업한 젊은 후배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내는 하모니는 활기차고 힘이 있으면서도 푸근했다.

합창을 마치고 무대 계단을 내려오는 고령의

단원들을 이종현 지휘자가 손을 잡아 주며 에스코트 해주자 객석에서 큰 격려의 박수로 힘을 실어 주었다. 다른 팀들은 젊은 합창단이었지만, 남가주동문합창단은 연령대가 높은데다 먼 미국 땅에서부터 날아와서, 오랜 연륜에서 나오는 깊은 울림을 선사해 관객들이 더 인상적으로 느꼈던 것 같다. 이날 김순영·김영주 총동창회 고문, 남상택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총동창회 임원 20여명이 참석하여 공연을 관람하였고, 공연이 끝난 뒤 대기실로 찾아가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인사를 나누었다.

전날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합창단을 아침 일찍 숙소로 찾아가 만났다. 주최 측으로부터 4박 5일 동안의 숙식 등 체재비를 제공받은(항공비는 자가 부담) 단원들이 단체로 묵고 있는 호텔이다. 11명의 합창단 임원들이 이화 마크가 찍힌 회색빛의 단체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다. 전날 자정 가까이 숙소로 돌아왔는데, 피로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쾌활한 모습으로 이틀째 공연 준비를 위해 분주하다. 주로 60, 70대인 단원들은 공연 사흘 전 귀국하여, 열두 시간 이상 예술의전당에서 머물며 하루 1만 보 이상 걷는 강행군에 맹연습을 하였다고 한다.

이날 인터뷰는 남가주 지회장 이보경(생미, 8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합창대축제에서, 참가한 국내외 합창단이 한마음으로 〈아리랑〉을 노래했다

동창 및 단장을 맡고 있는 안혜숙(간호 74) 동창, 총무 김순신(화학 69) 동창과 운영위원장인 박화자(간호 66) 동창, 운영위원인 송정현(교육 57)·송은섭(정의 57)·안성옥(가정 61)·박만혜(사회 63)·최문희(피아노 67) 동창 그리고 이정자(사회 62)·이순자(피아노 72) 동창 등 11명이 함께하였다.

90대 동창부터 30대 동창까지 아우르는 화합의 장
단장인 안혜숙 동창은 “올 봄에 합창제 모집 요강이 발표되자마자 참가신청서를 냈어요. 단원들이 손발이 잘 맞아 모두 한마음으로 적극 도왔지요. 덕분에 단원 명부, 연혁과 소개 자료, 사진과 연주 동영상 등 모든 자료가 하루 만에 준비되었어요. 2003년 창단 이래 14회의 정기 연주회를 거치며 늘 준비가 되어 있던 터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발표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공정한 절차대로 심사받고 합창단의 실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예술의전당 같은 큰 무대에서 이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 보였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힌다.

창립 멤버인 송정현 동창은 “처음에는 음악 전

공자를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었어요. 점차 활동이 뜸해지던 차에 정매인(음악 60) 동창이 지휘자로 와서 무료로 7년간 합창단을 이끌면서 지금의 기틀을 다졌지요”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비전공자에게도 참여를 확대한 것이 계기가 되어 활성화가 되었고, 현재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단원으로 모여 40여 명이 되며, 최고령 선배 김진현(체육 49) 동창부터 제일 젊은 단원인 김희정(피아노 02) 동창과 반주자인 주희정(피아노 08) 동창까지, 9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세대와 전공자를 아우르며 합창으로 선후배 간의 화합을 이루어 내고 있다.

남가주 지회에는 현재 1,500여 명의 동창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 900여 명의 동창이 이메일로 동창회 소식과 경조사를 나누며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 또한 소모임 활성화에 주력하여 지회 산하에 단과대학별, 취미별, 지역별로 15개의 산하 단체를 만들어 회원들을 이어 주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합창단 운영위원장인 박화자 동창은 “남가주 지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며 동창회를 이끄는 동력이 바로 합창단이에요. 동창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 등 다수의 동창회

임원이 합창단원으로 있으면서 동창회 행사가 있으면 합창단이 나서서 주도하지요, 보배들이 모인 곳입니다”라고 설명한다.

단원은 33년 넘게 교직에서 활동하다가 퇴직하고 자발적으로 합창단을 찾아온 총무 김순신(화학 69) 동창처럼, 각자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활동한 후 은퇴하고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말 신문에 난 이화 동창

데, 하루를 온전히 바쳐야 할 만큼 만만치 않은 과정이다. 미국의 지리적 여건상 동창들의 거주지가 멀리 흩어져 있는데, 연습 장소인 LA의 동양선교교회에 가려면 보통 한 시간 반 정도, 서울서 대전 거리의 고속도로를 달려야 한다. 때문에 젊은 단원들이 연령이 높은 두세 명의 선배들을 태우고 온다. 공연을 앞두고 자주 모일 때는 주 2~3회, 밤 운전으로 2~3시간 거리를 달려오기도 하고, 때론 우버 택시를 이용해 여러 명이 함께 타고 오기도 한다.



합창대축제의 첫 번째 순서로 선 남가주동문합창단이
<힐링 날아요>를 노래하였다

회 광고를 보고 용기 내어 찾아왔다는 동창, 노래를 좋아해서, 또는 노래는 못해도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선배들의 권유로, 등등 시작하는 사연은 다양하다. 안성옥 동창은 “자신을 알아주며 챙겨주는 합창단에 조인하게 되고서 이화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분주한 이민 생활에서 벗어나 학창 시절보다 더 돈독한 우정을 쌓게 되는 건 물론이고, 노래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넘어, 치유의 합창으로서의 특별한 경험도 하였다. “큰 아픔을 겪고 있었던 한 단원이 합창 활동을 시작하면서 힐링 프로세스를 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면서 합창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고도 한다.

합창 연습은 매주 토요일에 주 1회 하고 있는

매년 정기공연과 지역사회 활동

열정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조건에서 16년이나 유지된 비결이 무엇일까. 안혜숙 동창은 “이화, 기독교 정신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강조한다. “각자 전공도 다르고, 살아온 시대와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이화라는 이름 하나로 만나, 앞에서 끌어 주고 뒤에서 밀어 주며 선후배가 함께 이끌어왔다”고 설명한다. 또한 “모임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이끌고 있어 두려움 없이 해 나가게 된다”며 모국 공연을 위해 출발 전 목사인 이희숙(약학 62) 동창의 주도로 단원 전체가 릴레이 단식기도를 드리고 왔다고 한다. 창립 멤버인 송은섭 동창은 “미션스쿨인 이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하고 드러나지 않게 서로 배려하고 도우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인다.

이화를 구심점으로 한 합창단의 선후배 관계는 돈독한 유대감으로 견고히 뭉쳐 있다. 최문희 동창은 “대선배들이 연습도 빠지지 않고 너무 열심히 참여하니, 선배들 열의로 이룩해 놓은 합창단을 후배들이 지켜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선배들에게 공을 돌린다. 경비는 회원들이 각 출하고 젊은 회원들은 발로 뛰어 가며 기금 모금

을 하고, 재능 기부로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팀워크가 대단하다. 또한 가족의 도움을 빼놓을 수 없다. 가족들이 총동원되어 후원도 아끼지 않고 지지해 주어 가족들의 힘이 큰 원동력이 된다.

남가주동문합창단은 매년 정기공연을 열고 있는데, 올해는 명망 있는 Colburn School의 Zipper Concert Hall에서 제14회 정기공연을 가졌다. 이번 공연에는 특히 무용과 동창들의 활약과 동창 가족의 참여로 더욱 다채로운

무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가을에 음악회를 열지만, 남가주동문합창단은 특별히 모교 창립일을 기념하여 매년 5월에 연주회를 하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공연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2016년 모교 창립 130주년 합창제 참석이라고 한다. 해외 동창으로서 첫 참가 사례였

을 뿐 아니라, 남가주동문합창단으로서도 첫 해외 공연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지역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아졌고, 공연 초청도 많아져 합창단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한다. 이어 2018년 모교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캐나다 초청공연까지 두 번의 해외 공연 경력도 쌓았다.

또한 2016년 8월에는 모교 음대 박신화 교수와 모교 재학생 합창단인 Ewha Chamber가 LA에 방문해서 남가주동문합창단과 합동 공연을 한 것도 인상적이다. 이 두 공연을 통해 모교와 해외 거주 동창들 간의 유대감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 남가주동문합창단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사에 참가하고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

다. 작년 4월, ICSF(International Christian Scholarship Foundation)라는 국제기독교장학재단에서 여는 'Focus on Korea' 행사에 초대받아 한복을 입고 참가한 경험도 소중하다. 한인 단체가 아닌 미국인 단체에서 이화를 위해 기도하고 장학기금을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감명이 깊었고, 한국을 기념하는 행사에 지역을 대표해 남가주동문합창단이 초대받은 것에 자부



지난해 열린 작은 음악회 〈Ewha Dinner Concert〉에서 가족·친지와 함께하였다

심을 느끼고 있다.

남가주동문합창단은 8월 18일(일) 모교 대학교회에서 마련한 특별무대에서 은혜로운 특송을 들려주고 귀국했다. 인생 전반기는 국·영·수가, 인생 후반기는 음·미·체가 인생의 질을 좌우한다고 했던가. 남가주동문합창단은 그 성격상 합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편안하게 합창을 즐기는 모습이 더 보기 좋다면 앞으로 젊은 후배들이 부담 없이 참여해 합창단을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주 지역사회에서 선후배 간의 화합의 하모니로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남가주동문합창단에 응원을 보낸다.

글·최지영(사학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과감하게 블루오션에 뛰어들어 기회를 쟁취하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작년 겨울과 올봄까지만 해도 온 나라가 미세먼지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렀다. 올가을과 겨울에는 또 얼마나 미세먼지에 시달릴까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분위기에서 실내환경과 에너지를 동시에 분석하는 솔루션 기업 ‘아틀라슨’의 실내 미세먼지 측정은 큰 화제를 낳았다. 이 기업의 대표 박지현(융합보건 99, 대학원 건축 01) 동창은 창업 당시를 떠올리며 “아이러니하게도 아틀라슨에게는 미세먼지가 효자 노릇을 한 셈”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당시 IoT(사물인터넷)가 화두로 떠오를 때라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졌다. “저희 제품은 개발 초기부터 아예 사물인터넷과 연결되는 센서가 장착되는 시스템이기에 그것이 요구되는 시장 상황이 저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지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야 그 분야의 연구개발을 시작할 때, 저희는 이미 그 알고리즘 개발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발 빠르게 시장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학창 시절, 겨울만 되면 수업시간 외에는 스키장에서 살 정도로 ‘이화스키’ 동아리의 열혈 회원이었던 박 동창은 대학원을 마친 후 간삼건축이라는 꽤 규모 있는 설계사무소에 입사해 7년 동안 건축설계 일을 했다. “제 성격이 활달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편이라 그 곳에서도 스키부를 조직해 시간만 나면 여전히 스키를 타려 다녔어요.”(웃음)

뭐든지 열심히 하는 성격의 박 동창은 학부 때도 보건학과 건축학으로 복수 전공을 하느라 무척 바쁘게 지냈다. “건축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실내 환경을 관리하는 것, 즉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면에서 보면 두 가지 전공을 모두 살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건축을 공부하면서도 늘 건강한 건축물을 만들자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죠.”

박 동창은 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2009년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로 유학길에 올랐다. 그리고 2015년 빌딩사이언스(건축학과 빌딩 성능 진단) 분야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우리나라 건축계가 건축디자인 분야는 많이 성장했지만, 빌딩사이언스 분야는 많이 약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야말로 블루오션이었죠. 당시 외국에서는 우리

와 똑같이 건축설계를 해도 실내환경이나 건강과 관련해 컨설팅을 받는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망이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고요.”

창업, 당차고 아름다운 도전

말로는 장난처럼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하나의 회사를 차리기까지 힘든 과정과 시행착오도 없지 않았으리라. 창업의 계기와 준비 과정은 어땠는지 궁금했다.“자연스럽게 창업의 기회가 왔어요. 카네기멜론대학은 공대가 강한 학교여서인지 좋은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있으면 적극 창업을 지원해 주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연구교수를 하고 있을 때 컨설팅 일로 캐나다에 가서 어떤 회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회사와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하려면 창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2016년에 먼저 캐나다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한캐나다협회에서 엑셀러레이터 제도를 통해 창업에 도움을 주었어요. 그 후에 저희와 파트너가 될 한국 회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잘되어 있는데다 외국과 달리 창업 절차가 빨리 된다는 점이 저희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죠. 2017년 친구인 현 아틀라슨의 기술부설연구소장 김소영(철학 99, 대학원 건축 01) 동창도 같이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박 동창의 설명이다.

아틀라슨은 작년 한 해에만 상을 4개나 받았다. 제19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최우수상, 제3회 IoT 이노베이션 챌린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회장상(우수상), 제12회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대상, 제4회 BIXPO 국제컨퍼런스 글로벌스타트업배틀 은상이 그것. 그 유명세를 치르듯 회사는 24시간 풀가동되고 있다. 박 동창은 “예상보다 시장의 확장세가 커서, 그 요구에 재빨리 대처하려다 보니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결승전에 임하듯이 일하고 있어요”라며 기쁜 비명을 지른다.

현재 아틀라슨의 대표 서비스는 실내환경 분석 및 평가와 건물인증 시스템이다. 먼저 아틀라슨 IEQ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내환경 다섯 가지 요소인 공기질, 온·습도, 빛, 소음도, 공간감을 모두 관리한다. 빅데이터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섬세한

지난 9월 5일(목)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9 테스트베드 서울박람회-스타트업 서울’ 프로그램에서 발표 중인 박지현 동창



실내환경 관리와 제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능이다. 이때 아틀라슨의 대표 제품인 '아틀라슨 LEO', '아틀라슨 MEGA'가 기능을 발휘한다. 이 제품은 실내 환경 측정용 복합센서 모듈로, 한 대의 디바이스를 통해 최대 14가지 요소를 측정하는 고성능 센서 모듈이다. 이 모듈이 장착된 건축물의 경우 아틀라슨의 IEQ 모니터링 시스템 앱이 깔린 모바일 기기와 연결해 실시간으로 실내공기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 대형 오피스, 아파트 전체는 물론, 5평짜리 원룸에도 이 시스템만 있으면 실내 공기질 측정 및 관리가 가능하다.

미세먼지에 초미세먼지까지 심한 날이면, 일반 가정에서는 공기청정기를 하루 종일 틀어놔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렇게 종일 틀어놓는 것이 맞는지, 언제쯤 꺼야 하는지, 언제 실내 환기를 시켜줘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아틀라슨의 'IEQ(Indoor Environmental Quality) 분석 시스템'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빌딩 자체의 건강건축 인증제도나 LEED 그린빌딩 인증제도를 받으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런 인증제도가 바로 아틀라슨이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3대에 걸친 이화의 울타리

아틀라슨의 시스템은 주로 대형 오피스 건물에 대단위로 들어간다. 외국에서는 부동산 임대료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틀라슨의 주 목표 고객도 사무실 위주였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용 소비자들을 목표로 한 제품 판매에도 관심을 기울이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동창은 "우리가 가진 기술은 사실 처음부터 북미에서 관심을 보였고, 지금도 외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캐나다, 미국, 홍콩 등에서 매출실적을 올렸지만, 작년 말부터 국내의 몇몇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관공서, 학교뿐만 아니라 특히 실내 환경 위생을 우선으로 체크해야 하는 병원 수술실이나 입원실에서는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제는 가정에서도 미세



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추세로 시장이 변화되고 있으니, 우리 기술과 제품의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박 동창이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유는 아틀라슨만의 차별화된 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타 회사의 시스템은 실내환경 측정값만 보여주는 반면에 아틀라슨은 그 측정값에 대해 사람들이 만족할지, 이것이 국제 기준에 맞는지 등을 빅데이터로 표준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제시해 준다. 즉, 무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사용자의 만족도를 고려한 정성적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박사 과정 때 만나 결혼한 박 동창은 남편이 같은 전공 분야이다 보니 늘 같이 움직이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토론하고 조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힘이 된다고 한다. 박 동창은 친할머니 전금순(이화보육학교 33) 동창부터 친정어머니 손경순(국문 72) 동창 그리고 본인까지 3대에 걸친 이화인이다. 할머니는 20년 전에 작고하셨지만, 이화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으며 당당하게 성장한 것이 학업이나 사업을 추진력 있게 이끌어가는 데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말한다. 특히 친정어머니는 박 동창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든든한 후원자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제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응원해 주셨어요. 박사과정을 할까 말까,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일 때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항상 서포트해 주셨지요.”

“저희의 최종 목표는 소비자들이 실내환경 관리에는 ‘아틀라슨’이라는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박 동창은 창업을 꿈꾸는 모교 후배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재밌게 살되, 자기만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어 꼭 한번 1등을 해보라”고 조언한다. 진정한 열정이 느껴지는 박 동창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 이었다. “그런 성과를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뭔가를 이뤄낸다는 것에서 참다운 희열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글·정진숙(행정 89, 이화동창 편집위원)

2017년 한국전력공사(kepco)와 에너지 스타트업 업무협약식 장면(위)

지난 8월 20일(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우리은행이 맺은 ‘상생과 공존을 위한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과 대화 중인 박 동창(아래)





현지 언어로 된 성경을 만들며

톤템보안어 신약성경 봉헌식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톤템보안어 신약성경이 자카르타에서 인쇄되어 출판되었습니다. 마치 한 생명이 세상에 나온 듯합니다. 톤템보안 사람들 사는 마을의 한 교회에서 1월 19일(토) 성경봉헌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마을 사람들, 번역자들 가족들, 다른 지역에서 축하하러 오신 분들까지 함께하며, 15년간의 사역의 열매를 함께 감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성경이 마을 사람들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현지인 번역자들은 성경 공부 교재를 톤템보안어로 번역하였고, 신약성경을 녹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톤템보안 사람들이 부족어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깨달아 가며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곧 구약성경이 번역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정후원단체로부터 승인이 나면 구약 번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톤템보안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 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현지 교회들이 마음을 합하고 협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푸아 섬에서 누가복음 점검

2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파푸아 섬에서 엘○어로 번역된 누가복음 일부를 점검했습니다. 2월 18일(월)부터 3월 4일(월)까지 파푸아 섬의 머○우 시에서, 아○어로 번역된 사도행전과 야고보서를 점검했습니다. 번역 점검을 마친 후 마을 사람들의 간증이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무당을 부르곤 했는데,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함께 기도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11일간 집중적으로 사도행전과 야고보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고 점검하면서,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그의 삶을 계속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성경번역 점검

5월 31일(금)부터 6월 7일(금)까지 인도네시아 J섬에서 워○어로 번역된 요한계시록을 점검했습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마을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것을 보며 그동안 번역자들이 인내하며 수고한 결과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워○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깨달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부족 사람들은 2~3년 내에 그들의 언어로 된 신약 전서를 갖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을 사랑하셔서 현신자들을 보내시고 오랜 세월 일하게 하셔서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족어로 번역된 히브리서, 야고보서, 고린도 전·후서를 점검하며 동역할 수 있는 기회로 인해 감사한 마음입니다.

구약 원문 해석 세미나

6월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 서울침례교회 교육관에서 있었던 구약 원문 해석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이를간 히브리어를 간략하게 배우고(시편 몇 편을 읽고 히브리어 노래를 들음), 그 다음 이를간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몇 가지 어려운 해석들을 살펴보고, 요나서를 원문으로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배우고 덮어두었기 때문에 거의 잊어버렸는데, 이번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히브리어를 다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절씩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을 연습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계속해서 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GBT 선교회 총회

7월 1일(월)부터 6일(토)까지 성경번역선교회 총회가 청평에서 있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총회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차기 대표를 선출하고, 변해가는 선교지 상황에 발맞추어 정보를 나

누며 선교 전략을 세우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단체로서 가며, 서로를 섬기고 추수할 일꾼으로서 각자 처해진 현장에서 영혼들을 충성되게 섬기는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글·김경옥(국문 84)



기·도·해·주·세·요

- 톤템보안어 신약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달아 성숙한 신자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 재정후원단체로부터 승인이 나서 구약성경 번역이 톤템보안어/톰블루어/마나도어로 시작되게 하소서.
- 10월 14일(월)부터 P섬에서 E어와 K어로 번역된 누가복음, A어로 번역된 베드로 전·후서를 점검하는데, 그 준비 작업으로 번역된 말씀을 잘 깨닫고 기쁨으로 점검노트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실제 점검 때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좀 더 철학하고 자연스런 문장으로 수정되게 하소서.
- 어머니(70세)가 인지장애 증상이 있으신데 기억력이 켜하되지 않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인도하소서.

모교 학사 구조 개편과 동창회 명칭 변경의 관계

※ 지난 호(2019년 여름호) '모교사용설명서/변경되거나 신설된 학과가 궁금해요' 기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과 표 항목 중 '2019년 현재 모교 소속 및 명칭'에서 누락된 학과 및 전공명을 이번 호에 추가합니다. 또한 현재 정식으로 동창회가 결성되어 활발히 활동 중인 대학원 동창회의 이름도 함께 실습니다. -편집자 주

모교는 1996년과 1998년에 각 단과대학에서 학부제로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학부제의 시행은 대학 교육에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세분화되어 있는 학과 중심의 학문 구조를 재편하여 학문간 연계성을 강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2007년 스크랜튼대학 신설, 2011년 건강과학대학 개편, 2016년 신산업융합대학 신설, 2017년 엘텍공과대학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대학 및 학과(전공)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통폐합으로 명칭이 바뀐 학과도 생기게 되었다. 총동창회는 모교의 모든 졸업생이 회원으로 구성되는 까닭에 기존 학과의 졸업생은 물론, 신설되거나 개편된 학과의 졸업생도 모두 아우르게 된다. 따라서 여러 학과명이 혼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활동 중인 동창회가 모교의 학사 구조 개편 및 학과 개명에 따라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겨 혼란을 겪어 왔다. 이런 혼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지난 호에 동

창수첩에 있는 학과명과 2019년 현재 모교의 각 단과대학별 학부 및 전공 명을 알기 쉽게 정리한 표를 실었다.

그러나 그 표에는 아직 학과(전공) 동창회가 결성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총동창회 명부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신설된 대학과 학과명(▲)과 현재 총동창회에 명부를 올려 활동 중인 대학원 동창회명(▲▲)이 누락되었다. 이에 이번 호에 그 이름을 추가하여 새롭게 작성된 표를 다시 신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번 폐지로 나갔던 종교음악과는 오르간·피아노전공은 건반악기과로, 성악은 성악과로 개편·이동되어 동창회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다음의 표는 현 총동창회 소속 과(학부), 대학(원)을 기준으로 수록된 동창수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에 현재 동창회가 결성되지 않은 신산업융합대학과 스크랜튼대학은 동창수첩의 총동창회 소속 단과대 항목에서 빠져 있다.

변화를 거듭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모교의 각 대학 및 학과의 명칭이 바뀌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몇십 년 후 또 어떤 이름의 새로운 학과가 등장할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글·정진숙(행정 88, 이화동창 편집위원)

대학	동창수첩 학과명	2019년 현재 모교 소속 및 명칭	대학	동창수첩 학과명	2019년 현재 모교 소속 및 명칭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조형예술대학	동양화과	조형예술학부 동양화 전공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서양화과	조형예술학부 서양화 전공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부		조소과	조형예술학부 조소 전공
	불어불문학과(불어교육과)	불어불문학과		도예과	조형예술학부 도자예술 전공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섬유예술과(자수과)	섬유패션학부 섬유예술전공
	기독교학과	기독교학과		생활미술과(디자인학부의 공간·시각·산업·영상디자인)	디자인학부
	철학과	철학과		장식미술과	섬유패션학부 패션디자인 전공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 전공
	사학과	사학과		체육과(사회체육과)	신산업융합대학 체육과학부 스포츠과학 전공 글로벌스포츠산업 전공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무용과	음악대학 무용과
	행정학과	행정학과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학과
	문화정보학과(도서관학과)	문화정보학과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신문학 과, 신방과, 인문총보영상학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사회학과	사회학과		교육공학과(시청각교육과)	교육공학과
	사회복지학과(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특수교육과	특수교육과
	심리학과(교육심리학과)	심리학과		영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경제학과	경제학과		사회과교육과(사회생활과)	사회과교육과
자연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소비자학과		과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수학과	수학과		수학교육과	수학교육과
	통계학과	통계학과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융합보건학과 (건강교육과, 보건교육과)	신산업융합대학 융합보건학과
	화학과	화학생명분자과학부 화학·나노과학전공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엘텍공과대학 (공과대학)	생명과학과(생물학과)	화학생명분자과학부 생명과학 전공		경영학과	경영학부
	컴퓨터공학과(전자계산과)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공학 전공 사이버보안전공▲		국제사무학과(비서학과)	신산업융합대학 국제사무학과
	전자공학과	차세대기술공학부 전자전기공학 전공 화학신소재공학전공▲	의과대학	의학과	의예과/의학과
	환경공학과(환경과학과)	미래사회공학부 환경공학 전공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간호대학	간호학부 간호학 전공 글로벌건강간호학 전공
	건축학부	미래사회공학부 건축학전공 건축도시시스템공학전공	약학대학	간호학과	간호학과
	식품공학과	차세대기술공학부 식품공학 전공		생활환경대학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가사과, 가정과) 의류직물학과 식품영양학과
		휴먼기계바이오공학부▲		신산업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이동 및 가정경제 전공은 폐지) 신산업융합대학 의류산업학과 신산업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음악대학	피아노과(기악과)	건반악기과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	융합콘텐츠학과▲
	관현악과	관현악과		융합학부 뇌인지과학전공▲	
	성악과	성악과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한국학전공▲	
	작곡과	작곡과	대학원동창회	일반대학원▲▲	
	종교음악과	건반악기과, 성악과		교育대학원▲▲	
	한국음악과	한국음악과		디자인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신학대학원▲▲	

* 최근 편제 개편에 대해서는 모교 홈페이지

<이화소개-이화발자취-연혁>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총동창회는 동창수첩 기준으로 동창회를 구성하고 있다

* ▲표시는 총동창회 명부에는 없으나 모교 학사 구조에는 포함된 대학, 과(전공)

* ▲▲표시는 대학원 동창회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순서로 게재



민병주(물리 81) 동창 **제32대 한국원자력학회장 취임**

민병주 동창이 9월 1일(일) 제32대 한국원자력학회장에 취임하였다. 취임식은 9월 6일(금) 쉐리톤 서울 팔레스 강남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 학술 활동 촉진, 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로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민 동창은 지난해 제31대 수석부회장 겸 원자력이슈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송경희(커미부 83) 동창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취임**

성균관대 초빙교수 송경희 동창이 8월 30일(금)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에 취임했다. 송 동창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연구원, 방송위 위촉위원, 대통령 대변인과 국내언론 비서관, 방송위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새로운 경기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효선(사회 84) 동창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김효선 동창이 7월 4일(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24회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김 동창은 여성신문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성평등 이슈를 여론화하고 미디어를 통한 여성인권 증진과 양성평등 사회를 향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나세리(수학 84) 동창 **제7대 한양여자대학교 총장 선임**

나세리 동창이 한양여자대학교 제7대 총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9월 1일(일)부터 4년이다. 나 동창은 1991년 한양여자대학교에 부임해 컴퓨터정보과 교수로 29년간 재직해왔으며, 컴퓨터정보과 학과장, 교수학습개발센터 센터장, 교무처장 등을 역임하였다.



조은영(컴공 86) 동창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조은영 동창이 6월 19일(수) 공직복무관리 유공자 포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조 동창은 증강현실 전문가로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증강현실을 통한 보행자 길안내 서비스 앱을 개발·적용해 이 분야의 기술 선점은 물론 올림픽 관광객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대학(원) 소식

대학(원) 순서로 게재

자연과학대학

회장 __ 최은영(물리 87)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19년도 자연과학대학 정기총회가 6월 17일(월) 이화·삼성교육문화관에서 열렸다. 현 자연대 회장인 최은영 물리학과 회장 이하 임원진과 많은 선후배 동창들이 참석하였다.

정기총회 자리에서는 2018년도 감사 보고와 사업 보고, 결산과 기금 현황 보고가 있었으며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이 있었다. 이어 각 과 동창회의 1년간의 활동 상황을 공유하였다. 한 편 올해의 이화인인 황유경(생명 89, GC녹십자랩셀 세포치료연구소 소장, 전무)·선문숙(물리 89,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국제협력팀장) 동창과 새로 임명된 정명애(화학 86) 나노화학과 회장, 조보연(생명 86) 생명과학과 회장을 소개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한 자연과학대학 동창회

자리도 가졌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간단한 식사 자리가 이어져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 선후배들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음악대학

회장 __ 최은희(종음 81)

졸업 50주년을 맞은 선배 동창들의 모교 방문

5월 31일(금) 동창의 날 행사에 음대 동창회 회장을 역임한 유순희(기악 69) 동창을 포함한 10명의 선배들이 졸업 50주년을 맞아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하여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음대 동창회 임원들은 이대 후문에 위치한 식탁에서 임원회를 갖고, 5월 동창의 날 행사, 이화 뮤직페스티벌, 김영의 선생님 추모음악회, 전시



졸업 50주년을 맞아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음대 동창들

회 등의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을 축 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쉼터 청소년들이 서울 소재 66곳의 이화 동창 병원에서 무료 진료를 받게 되었다.

의과대학

회장__심 현(의학 80)

제10회 이화의대 동창회 골프대회 개최

6월 2일(일) 수원 CC에서 제10회 이화의대 동창회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총 44명의 동창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신파리오 방식에 의해 우승은 김지영(의학 89) 동창, 준우승 최번숙(의학 77) 동창, 메달리스트 남소자(의학 66)·정은주(의학 90) 동창, 니어리스트 오영(의학 80)·조종남(의학 75) 동창, 롱기스트 백희정(의학 83)·김정원 A(의학 84) 동창, 다파상 배순희(의학 75) 동창, 다보기상 김주리(의학 89) 동창, 베스트드레서 심기남(의학 92)·황인혜(의학 07) 동창이 수상하였다.

7월 1일(월) 이대서울병원 3층 계림홀에서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드니무퀘게 박사의 명예의학박사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7월 9일(화) 종로 봉우리에서 서울 소재 쉼터 6곳과 위기 및 가출 청소년 의료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식이 개최되었다. 이 협약식으로 총 19개



가출 청소년 의료지원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맺은 의대 동창회

간호대학

회장__임경희(간호 80)

간호대 학장의 초대로 저녁식사 모임

8월 18일(일) 이대 자연솜씨에서 김미영(간호 84) 간호대 학장의 초대로 저녁식사 모임이 열렸다. 이대 간호대 남가주동문합창단원 중 단장 안혜숙(간호 74) 동창과 박화자(간호 66)·김윤자(간호 67)·김정순(간호 75)·문지현(간호 98) 동창, 홍근표·이광옥(간호 61)·김문실(간호 68)·이경혜(간호 68)·하영수(간호 68)·이자형(간호 70) 명예교수, 김미영 간호대 학장, 혼석경(간호 87) 이대 목동병원 간호부원장, 이은화(간호 88) 이대서울병원 간호부원장, 임화지(간호 66) 동창회 감사, 임경희 간호대 동창회장, 한상애(간호 75) 동창회 부회장, 류병국(간호 75) 동창회 선교부장, 김진향(간호 73) 동창회 재정부장, 양순옥(간호 75) 동창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각 간호부원장의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현황 설명이 있었다.



학장 초대 저녁식사에 참석한 간호대 동창들

학창 시절의 교수님들과 제자들의 만남,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동기동창과의 만남은 항상 감동을 준다. 친구 같은 모습으로 변한 사제지간과 서로의 손주 사진을 보여 주며 학창 시절을 추억하는 모습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정겨움을 안겨 주었다.

약학대학

회장__이미애(약학 79)

이대약대 동창 소식지 배포

5월 31일(금) 오후 2시 모교 대강당에서 열린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다. 약대 합창단은 <나는 나비>라는 노래로 합창대회에 참가하였다. 졸업 50주년을 맞은 20기(1969년 졸업) 동창들이 많이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6월 10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약대 20기의 졸업 50주년 행사를 압구정동 한일관에서 가졌다.

6월 11일(화) 오전 11시에 약대 약학관 B동 108호 (교수회의실)에서 선교예배를 가졌다.

6월 20일(목) 오전 11시 이대서울병원 회의실에서 임원 40명이 참석하여 정기 임원회를 가졌다. 회장 인사 및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특별 위

원회 및 각 부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이대서울병원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의 환대를 받았으며, 병원 내의 약대 학생 실습실 앞에 병원에서 약대 동창회 기부금 감사 명패를 붙여 주기로 하였다.

7월 9일(화) 오전 11시에 약대 약학관 B동 108호 (교수회의실)에서 선교예배를 가졌다.

7월 16일(화) 오후 1시에 압구정 포바셋에서 제37호 이대약대 동창 소식지 편집회의를 가졌다.

8월 6일(화) 오전 11시에 약대 약학관 B동 108호 (교수회의실)에서 선교예배를 가졌다.

8월 9일(금) 이대약대 동창 3,400여 명에게 제37호 이대약대 동창 소식지를 배포하였다.

8월 27일(화) 오전 11시 30분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주홍장학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생활환경대학

회장__백추혜(식영 72)

졸업 50주년 축하 행사 개최

생활환경대학(구 가정대학) 동창회 '아령회'는 6월 3일(월)과 11일(화) 두 차례에 걸쳐 모교 이삼봉홀과 모모극장에서 바자회를 열었다. '멋진 이화인 똑똑한 소비'라는 주제로 MCM을 비롯한 이광희 패션, 이영주부띠끄, 프로스페스스포츠, 질경이 등 30여 업체 등이 참여하였고, 80% 이상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풍성한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인간생활연구소와 성주재단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바자회에서는 많은 교직원과 동창들이 참여하여 생활환경대학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6월 20일(목) 아령당에서 졸업 50주년 동창들을



이대서울병원에서 열린 정기 임원회 행사에서 동창들의 기념촬영



졸업 50주년 행사에 참석한 생활환경대학 동창들

위한 감사와 축하의 행사를 열었다. 가정관리, 의류직물, 식품영양학과 세 과로 분리하여 졸업한 첫 해인 1969년 졸업생들이 졸업 5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50주년 졸업생 40여 명이 참석하였고 각 과 임원진, 여러 후배 동창들 30여 명이 함께했다.

아령회 바자회 수익금 중 일부를 인간생활연구소 발전기금으로 전달했고, 감사와 축하의 뜻으로 피아니스트 이샤론(이은경·가관 83) 동창과 색 소포니스트 김수연(이샤론 동창의 딸)의 멋진 클래식 축하 공연, 아령합창단(회장 우미형·의직 77)의 축하공연이 있었고, 다 함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싱어롱 시간도 가졌다.

동창들은 모교의 발전을 위해 후원해 주었고, 가정대 동창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랑, 서로의 친목과 화합과 화목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었다.

대학원 홈커밍데이 행사를 하였다.

사회복지대학원은 올해 창립 26주년을 맞는다. 이날 행사의 1부는 김연명 청와대 비서실 수석의 특강, 2부는 동창회 행사와 ‘당신에게 이화란?’이라는 주제로 졸업생들이 참여한 토크콘서트 행사, 장학금 전달,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 오프닝에 축사를 위해 참석한 김혜숙 총장과 교수들, 동창회가 다함께 어우러져 단체사진을 찍었다. 26년 동안에 총 동창이 모인 홈커밍데이 행사가 처음이었다는 사회복지대학원장의 환영사가 더욱 뭉클하였다. 졸업 후 동창들과 은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무척 감동이었다.

8월 28일(수) 저녁 7시, 이대 정문 앞 빼모도로에서 2019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앞둔 사회복지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동창회가 주관한 졸업 축하파티 소모임이 열렸다. 이날 양옥경(영문 82) 사회복지대학원장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깜짝 방문하여 졸업생들을 감동시켰다.

5학기 동안 학업과 일을 병행해 온 대학원 생활 동안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즐거웠던 추억들, 졸업 후 진로와 사회생활에 대한 고민들 등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한 응원과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사회복지대학원

회장 __ 유지선(사복대 18)

창립 26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5월 23일(목) 저녁 7시 모교 ECC 아삼봉홀에서
‘또 다시 봄, 감동 이화’라는 제목으로 사회복지



홈커밍데이에 참석한 사회복지대학원 동창들

과(학부) 소식

불어불문학과

회장 __ 유혜영(78)

멋진 아지트에서 진행된 동창 모임

불어불문학과 동창 모임인 아미회는 6월 19일(수) 김수영(77) 동창이 제공한 멋진 아지트에서 많은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맛있는 음식과 여유로운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6월에 동창 모임을 가진 불어불문학과 동창들

독어독문학과

회장 __ 이봉무(72)

기 간사 모임에서 건축기금마련 논의

6월 20일(목), 5월 있었던 동창의 날에 모교를 방문한 3회 동창 중 대구에 거주하는 이숙희(69)·

이정원(69) 동창에게 독어독문학과에서 마련한 선물을 우송했다.

6월 28일(금) 12시 강남호텔에서 기 간사 모임이 열렸다. 지난 4월 김희경유립정신문화장학재단에서 총동창회 및 졸업 50주년을 맞은 3회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이 축하 모임을 마련해 준 동창 회에 3회 기 간사 정진원(69) 동창의 감사인사가 있었다. 또한 학관 리모델링 및 부분 재건축 일정 및 건축기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7월 19일(금) 제14기 독일어 원어 연극반 브레터의 단장 전수빈 재학생이 지난 4월에 공연한 원어 연극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를 녹화한 자료를 동창회에 보냈다. 살로메는 니체, 릴케, 프로이트의 뮤즈였으며, 정신분석학자이자 작가이다. 연극은 동창회에서 함께 감상할 예정이다.



동창의 날 행사 후 ECC 앞에 모인 독어독문학과 3회 동창들

정치외교학과

회장__황혜경(87)

이정인이어서 행복해요

8월 19일(월) 11시, 명동 르와지르 호텔에서 정치외교학과 동창회인 이정회 모임이 열렸다. 신과 동격이라는 대선배부터 갓 졸업한 후배까지 한자리에 모아니 제법 멋진 그림이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이정회가 동창들을 위한 등대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동창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바란다고 힘주어 말하며 시작했다.

역대 회장들과 이화인의 소개와 말씀에 후배들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기 간사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모은 기별 명단을 공유하고, 명함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2019~2020년도 이정회 운영 방향과 23대 임원진 소개가 이어졌고, 공지사항이 있었다. 동창 모두가 교가를 제창하는 것으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역대 회장, 이화인, 기 간사 모임을 가진 정치외교학과 동창회

동양화과

회장__박정란(86)

고 이신호 동창 유작 전시회 열어

6월 2일(일) 이신호(72) 동창이 별세하였다. 서

울 건국대병원에서 선후배

와 동료 작가들의 추모 아

래 장례가 치러졌으며 6월

4일(화) 발인했다.

고 이신호 동창의 자제와

이원전의 기획으로 8월 14

일(수)부터 20일(화)까지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유작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

오픈 당일 많은 선후배와 동료 작가들이 모여 고

이신호 동창을 기리는 자리를 가졌다. 작품은 박물관 등 기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고 이신호 동창

서양화과

회장__채정수(83)

녹미미술문화협회 초대전

7월 2일(화)부터 13일(토)까지 녹미미술문화협회 초대전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파비욘드 갤러리에서 있었다. 전시 참여 작가는 서양화과 1회 졸업생인 신금례(49) 동창을 포함하여 이효범(섬 예 61)·천연순(62)·김은영(생미 64)·전경자(65)·최구자(65)·이서희(68)·이기미(72)·전정희(73)·김경인(동양 74)·김귀주(동양 74)·정정옥(74)·조



녹미미술문화협회 초대전에 참여한 서양화과 동창들

완영(74)·김효정(77)·공은희(80)·이선주(80)·차명임(82) 동창 총 17명이다. 이번 전시회는 서양화과의 왕 선배들의 기량을 뽐내는 자랑스런 전시회였다.

6월에 이서회에서 주최하는 동창 작업실 탐방 다섯 번째 프로젝트로 공은희 동창의 작업실에 다녀왔다. 공은희 작가와 동창들은 즐겁게 담소를 나눴고, 공은희 작가는 이서회에 애틋한 관심을 표했다.

조소과

회장__나진숙(84)

세 번째 작업실 탐방 진행

6월 14일(금) 강릉 하슬라아트월드 대표 박신정(85) 동창과 부군인 조각가 최옥영 교수는 강원도 영월에 복합문화공간 깊은 달 Y PARK를 개관하였다. 또한 강원도 고성의 바우지움 미술관 대표 김명숙(74) 동창은 동창들의 개인전 및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제공하고 있다.

이화조각회가 마련한 세 번째 작업실 탐방은 곤지암에 위치한 황지선(74) 동창의 작업실이었다. 20여 명의 동창들은 황지선 동창의 작업실을



황지선 동창의 작업실을 방문한 조소과 동창들

방문하여 황 동창의 작품 세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더불어 이화조각회의 나아갈 방향에 관한 의견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019 이화조각회 정기전은 10월 23일(수) 한벽원 미술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섬유예술과

회장__박희전(90)

동창회 바자회 준비 회의

8월 5일(월) 11시, 신사동에서 성수동으로 이전한 최유리(96) 동창의 리치 매장에서 섬유예술과 임원들이 모여 9월 바자회 준비 회의를 하였다. 참석자는 전영선(88)·박희전(90)·이상영(94)·이혜나(96)·최유리(96)·송원선(97) 동창이다.

해마다 예미인의 바자 부스는 유쾌하고 수익이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났다. 임원들은 예미인만의 특유의 독특함을 담을 수 있는 바자 부스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예미 선후배 동창들이 돈독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성공적인 바자회 개최를 기대하고 있다.



섬유예술과 동창회 임원들

생활미술과

회장__김곡미(87)

시각디자인·영상디자인전공 졸업 전시회

시각디자인전공 졸업 전시 'Visual Voyage 2019' 가 6월 18(화)부터 25(화)까지 ECC B4 극장에서 진행되었다. 4년간 배움과 노력의 결과물인 멋진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영상디자인전공 졸업전시 '상자 : The Box'는 6월 25일(화)부터 30일(일)까지 모교 조형예술관 A동 1, 2층 이화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시각디자인전공 졸업 전시 'Visual Voyage 2019'



밀라노 패션 뮤지엄 Palazzo Morando에서 열린 전시 풍경

다. 패션디자인전공 박사과정생 11명의 작품도 초대되었다.

도예과

회장__김미경(87)

양구배꼽축제 아트페어 참가

모교 도예연구소와 도예과 대학원 학생들은 강원도 양구에서 8월 2일(금)부터 4일(일)까지 열린 양구배꼽축제 아트페어에 참가하여 연구소 제품 및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였다.

한편 <2019 공예 매개인력 양성>은 공예 제작자와 소비자를 잇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교

장식미술과

회장__장남경(91)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작품 전시

모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박선희 (88) 동창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사)한국패션문화협회는 밀라노 시 후원으로 7월 9일(화)부터 28일(일)까지 'Connecting Borders : Hangeul x Fashion Art'라는 주제 아래 밀라노의 유서 깊은 패션 뮤지엄 Palazzo Morando에서 '2019 International Fashion Art Exhibition in Milan, Italy'를 개최하였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양구배꼽축제 아트페어

육프로그램이다. 2019년도에는 모교 도자예술전공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24일(토)부터 12월 14일(토)까지 약 4개월 간 15주차의 강연 및 워크샵 과정으로 운영되며, 12월 말 결과 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지고 활발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있다. 6월에는 파라다이스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프리즘 판타지’ 전시에 13명의 동창이 참여하여 한여름의 짧은 여행을 함께하였다. 8월 의직문화탐방에는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열린 ‘Summer Bloom : A Story of French Umbrellas’ 전에 총 11명의 동창이 참여하였다.

의류직물학과

회장__권혜정(84)

매년 우수 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 수여

의류직물학과 동창회에서는 매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학생작품전의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도 5월 31일(금) 생활환경관에서 열린 메이데이 학생작품전 시상에 권혜정 회장 외 임원진이 참여하여 발전하는 의류학과를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6월 12일(수)부터 18일(화)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2전시실에서는 제4회 EFCA 전시가 개최되었다. EFCA는 의류직물학과의 동창으로 회화, 사진,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의 모임이다.

의류직물학과 동창회에서는 매월 네 번째 수요일에 ‘의직문화탐방’을 통해 동창 간 친목을

식품영양학과

회장__정조인(83)

스승, 선후배와 훈훈한 정을 나눈 아령회

6월 20일(목)에는 졸업 50주년과 30주년을 맞이한 동창들을 위한 아령회가 아령당에서 개최되었다.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졸업 50주년을 맞은 동창 20명과 30주년을 맞아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된 조우균(89) 동창을 비롯한 2명이 참석하여 김숙희(60) 교수, 임원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졸업 50주년 동창들을 대표하여 최봉순(69) 동창이 인사말을 하였고, 김안수(69) 동창의 아령회 및 식영과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또한 김숙희 교수에게 감사인사와 꽃다발을 중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직문화탐방에 참여한 의류직물학과 동창들



아령당에서 개최된 졸업 50주년·30주년 동창들을 위한 아령회

남가주(LA) 지회

회장__ 이보경(생미 80)

다양한 문화 행사 진행으로 뜻깊은 시간

남가주동문합창단의 제14회 정기 연주회가 5월 25일(토) LA의 Zipper Hall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부 성가곡, 2부 민요와 동요, 3부 가곡으로 꾸민 이번 연주회는 Mission School 이화의 기본 정신을 충실히 반영해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으로 시작하여 <I Love You, Lord>를 마지막 앵콜 곡으로 올린 뜻깊은 연주회였다. Dramatic Soprano, Lindsay F. Westra가 특별 출연하여 중후한 목소리로 청중들을 매료시켰고, 한인 사회 최고의 인기 테너 전승철 씨는 우리 귀에 익은 <그대에게 내 말 전해주오>로 청중들에게 편안한 공감을 선사했다. Flute의 감미로운 반주로 <훨훨 날아요> 및 <동무 생각> 합창은 특히 청중의 호응을 받았으며, <동무

생각>의 끝 부분은 청중 전체가 다함께 열창하기 도 했다. <최 진사댁셋째딸> 합창엔 흥겨운 안무까지 등장해 박장대소를 자아냈다.

6월 30일(일) 엔젤리노들이 사랑하는 야외 음악당 ‘할리우드볼’로 초여름밤의 나들이를 갔다. 이 행사를 위해 동창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도시락, 와인, 8가지의 홈메이드 섬머샐러드 등 맛난 피크닉 음식이 85명의 동창 참석자들을 행복하게 했다. 히피 복장으로 단장하고 나타난 여러 동창들이 있어 큰 웃음과 박수 갈채를 받았는데, 그중 베스트 드레서 2명을 뽑아 상품을 수여하기도 했다. 1970~80년대를 풍미한 아바(ABBA) 그룹이 영화나 뮤지컬 <맘마미아>를 통해 대부분 익숙한 노래들을 연주할 때 많은 관객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춤추며 따라 불렀다. 한여름 밤의 향연을 즐긴 멋진 행사였다.

남가주 지회에서는 LACMA에서 열리고 있는 ‘선을 넘어서: 한국의 서예(Beyond Line: The Art of Korean Writing)’ 관람을 위해 7월 25일(목), 8월 6일(화), 두 차례의 도슨트 그룹 투어를 마련했다. 한인 2세 큐레이터 버지니아 문 박사가 야심차게 기획한 이 전시회는 서양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한국 서예전으로, 주류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시회를 기획한 버지니아 문 큐레이터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귀한 기회였다.



LACMA 도슨트 그룹 투어에 참여한 남가주 지회 동창들

뉴욕 지회

회장 __ 강혜경(영문 83)

뉴욕과 뉴저지에서 바비큐 모임 열어

6월 22일(토)과 29일(토) 양일간 뉴욕과 뉴저지에서 뉴욕 지회 동창회 바비큐 모임이 있었다.

6월 22일(토) 뉴욕 모임은 박영숙(경영 86) 전 회장 집에서 약 30명, 그리고 6월 29일(토) 뉴저지 모임은 김현우(서양 82) 부회장 집에서 약 65명의 동창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한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모임에 참석한 한 동창은 이화 동산의 푸근한 품을 다시 느꼈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1950년도에 졸업한 선배 동창부터 이제 막 졸업한 새내기 동창까지 함께하여 모교에 대한 사랑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다.



박영숙 전 회장 집에 모인 뉴욕 지회 동창들

덴버 지회

회장 __ 백홍자(조소 80)

공원에서 부부 동반 피크닉 모임

6월 16일(일) 동네 Silo Park에서 부부 동반 피크닉을 즐겼다. 동창들은 지난 3월 폐암으로 하나님 곁으로 간 고 황은주(식영 75) 동창을 애도하고, 공



부부 동반 피크닉을 즐긴 덴버 지회 동창들

원을 산책하며 좋은 시간을 가졌다.

7월 12일(금) 1990년도에 입학 혹은 졸업한 젊은 동창들과 식당에서 브런치 모임을 가졌다. 이화의 젊은 지성과 미모가 미국 사회 여기저기서 제 몫을 어떻게 당당히 해내는지를 알았고, 서로의 좋은 정보들을 교환하는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멜버른 지회

회장 __ 신은미(사회 99)

고경자 동창 팔순 기념 모임

8월 10일(토) Clayton에 위치한 강나루 한식당에서 2019년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날은 고경자(동양 63) 동창이 팔순을 기념하며 후배들을 위해 점심 자리를 마련하여, 너무나 편안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었다. 후배들은 미리 준비한 꽃다발과 선물 그리고 모두가 손수 쓴 카드로 마음을 전했다. 고경자 동창은 최근 읽은 노인성 치매를 다룬 책의 내용을 공유하였고, 신체보다 마음가짐 즉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주제로 대화가 이어지며 모두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다.



꽃다발과 선물로 고경자 동창의 팔순을 축하한 멜버른 지회 동창들

멜버른 지회는 모임이 크지 않고 30대부터 80대 까지 연배도 다양하지만 그래서 더욱 다양한 주제로 깊은 대화가 언제나 가능하다.

보스턴 지회

회장 __ 김지영(교육 82)

동창 가족을 위한 바비큐 파티

6월에 신은경(법학 88) 부회장 집에 11명의 동창들이 모여서 Zentangle Art를 배웠다. 간단한 패턴의 디자인을 그리며 부산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쉼을 얻는 연습을 해 보았다. 모두 즐겁게 새로운 경험을 하며,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가는 기쁨을 누렸다.

6월 말에는 좀 더 젊은 동창들이 참여하여 새롭게 만남의 장을 열어가기 위해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모임을 가졌다. 좋은 책을 교환 및 소개도 하고, 앞으로 함께 영화보기, 카약 타기, 북클럽, 요리 가르쳐 주기 등 많은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8월 마지막 날 동창 가족을 위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이혜원(약학 70) 이사장이 사는 별링턴에 위치한 클럽하우스에서 올해는 42명의 동창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푸짐하고 맛있는 바비큐 점심과

함께 넌센스 퀴즈, 즐거운 게임으로 모두 하나가 되는 웃음꽃이 피는 시간을 가졌다. 바비큐 파티와 함께 올해 두 번째로 장학금 모금을 위한 도토리 국수 바자회를 했는데, 단번에 70박스가 매진되었다. 그뿐 아니라, 세 명의 동창이 장학 후원금으로 1,000달러씩 도네이션을 해주었다.

지역사회에 어려운 아동들에게 전달할 10장의 사랑의 담요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나누어 가지고 갔다. 연말 모임에 가지고 와서 성탄 선물로 어린 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바비큐 파티에 참석한 보스턴 지회 동창들

볼티모어 지회

회장 __ 강성려(심리 67)

전통 조각보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시간

천연염색 활동가인 조미숙(의직 90, 전통염색교육연구소 대표) 동창이 강의차 볼티모어 지역을 방문한 기회를 빌어, 6월 13일(목) 강성려 회장 집에서 '전통 보자기에 나타난 한국인의 미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조미숙 동창의 특강을 진행하였다.

홍경주(약학 62) · 이영희(약학 63) · 오광자(가정 65) · 이상애(약학 65) · 강성려 · 이춘자(의학 67) · 김선희(생명 69) · 이진숙(식영 70) · 노선희(피아노



조미숙 동창의 특강에 참여한 볼티모어 지회 동창들

72)·박순옥(외국어교육 73)·유명숙(조소 78)·박은선(법학 82) 동창이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우리 전통 보자기의 아름다움을 배우고 즐기며 동창들의 정을 한껏 더할 기회가 되었다. 이번 모임을 위해 자택을 내어 주고,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준 강성례 회장에게도 감사드린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__곽정연(독문 76)

각종 상 수상한 동창들 축하

6월 1일(토) 정오, Hillsborough에 소재한 곽정연 회장 집에서 21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 모임을 가졌다. 강희식(사복 61) 동창이 KACF(Korean American Community Foundation)에서 Honorable Award 수상하여 동창들의 축하가 있었고, 참석한 동창들에게 간식으로 시루떡을 제공하였다. 한인들의 투표가 저조한데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는 회장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

산타클라라 한미노인회장인 이문자(국문 63) 동창이 SC한미노인회 6·25 참전용사 만찬을 개최하였다. 이현진(케미부 88) 동창이 방문하였다.

7월 6일(토) 정오, Milpitas에 소재한 장수장에서 19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 모임을 가졌다. 시애틀

에서 개최될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기를 부탁하였으며, 신청서는 9월에 마감한다고 공지했다. 서 지중해 크루즈 4개국 여행(10박 11일)을 제안하였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동창회 산하에 있는 이대 합창단에서 10월 5일(토)이나 12일(토)에 열릴 합창 음악회에 대한 논의를 했다. 현재 20명 이상의 동창이 매주 화요일에 모여 합창 연습을 하고 있다. 합창뿐만 아니라 동창 중 음악에 재능이 있는 동창들이 독창, 바이올린 삼중주 같은 프로그램을 겸해서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8월 3일(토) 정오, SFO Airport 근처에 있는 I Love Sushi에서 18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 모임을 가졌다. 양승희(사학 73) 동창이 서울에서 신지식인상을 수상하여 동창들에게 콩떡을 대접하였다. 해외에서 돌아온 선교사 박주리(교육 89) 동창과 부군(목사님)이 함께 참석하여 사진도 찍으며 오붓한 시간을 가졌다.



정기모임에 참석한 북가주 지회 동창들

세인트루이스 지회

회장__최혜영(생미 86)

수상의 영예를 동창들과 함께 나눠

선재숙(의학 72) 동창이 지난 5월 모교 동창의



선재숙 동창의 '빛나는 이화인상' 수상을 축하하는 부부 동반 파티 모임에서 선물 받은 스카프를 멋지게 두르고 기념 촬영을 하였다

날에 '빛나는 이화인상'을 수상하는 큰 경사가 있었다. 7월 10일(수) 남진우(간호 73) 동창 집에서 부부 동반으로 모여 모든 동창들이 한 마음으로 축 하하며 기쁨의 선물을 주고받고, 각자의 위치에서 이화를 빛내는 동창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경선(영문 61) 이사장은 지회 설립 후 현재 까지 22년 동안 지회 발전과 더불어 모교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아 온 정선주(성악 68) 이사에게 감사장과 기념패를 증정하여 모든 동창들의 귀감이 됨을 치하하였다.

세인트루이스 지회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진선미회로 모여 교제하며, 카톡방에서 수시로 모교와 동창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 돋고 격려하는 등 인생의 오아시스 같은 모임을 이어 나가고 있다.

명순(생미 69)·조혜순(교공 72) 동창의 기타 연주에 맞춰 유쾌한 싱어롱 시간과 함께 김성녀(과교 83) 동창의 지도로 재미있는 게임과 율동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이번 야유회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 수저를 지참하는 한편 임원진에서 재사용 가능한 식기들을 준비하여 쓰레기 양을 파격적으로 줄이는 환경 친화적인 야유회였다. 여러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10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에 개최되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준비를 위하여 박정혜(체육 71) 준비위원장은 중심으로 매달 준비위원회가 모임을 가지고 있다. 학창반도 열심히 연습하며 친교를 나누고 있으며, 사진반을 중심으로 매달 출사 모임을 갖고 총회를 기해 열릴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다. 시애틀 지회는 모교 관계자들과 북미 각지에서 올 동창들이 시애틀에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준비 중이다.



환경 친화적인 여름 야유회를 개최한 시애틀 지회

시애틀 지회

회장__신경림(장미 80)

환경 친화적인 여름 야유회

8월 3일(토) 시애틀 근교 커클랜드 시의 오오데니파크에서 여름 야유회를 가졌다. 총 54명의 동창과 부군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성숙(기독 69)·양

애틀랜타 지회

회장__김영례(심리 79)

상반기 동창회 행사 정리

3월 10일(일) 32명의 동창이 미술 박물관 High



가족과 함께 야유회에 참석한 애틀랜타 지회 동창들

Museum을 방문하여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는 문화 행사를 가졌다.

4월 14일(일)에는 둘루스 서라벌 식당에서 모여 그간 동창회를 위해 후원과 협조를 해온 애틀랜타 동창회 이사회를 폐지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추후 필요할 때 다시 발족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인순(약학 69) 동창의 옛 은사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훈훈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5월 19일(일)에는 한국인 2세 대학생 자녀를 위한 장학금 1,000달러를 한미장학회를 통해 후원하였다.

6월 9일(일)에는 둘루스 인근 Shorty Howell 공원에서 60여 명의 동창과 가족이 야유회를 가지고 자연과 함께 점심을 나누고 오락을 즐기며 동심의 마음으로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7월 14일(일)엔 서라벌 식당에서 모여 손바닥 지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동창 간의 친교를 나누었다. 8월 11일(일)엔 2019년 전반기의 행사를 돌아보고 각 부서의 올해 남은 행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 선교부 기도회에서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모여 이화 동창 선교사들과 모교를 위한 기도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화합창단은 축하 및 찬조 출연으로 앞으로 올해 두 번의 공연을 가

질 예정이며 10월엔 총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본 지회

회장 __ 고정희(장미 74)

부회장과 서기 새롭게 선출

6월 15일(토), 이화 동창의 가족인 김광자 씨가 경영하는 신주쿠 한인타운의 한식당 장터에서 일본 지회의 동창회가 있었다. 고나리(커미부 05) 동창의 석달배기 아가부터 어르신 동창까지 모여서 정다운 모임을 가졌다. 김혜숙 모교 총장이 선물한 동창회 현수막이 모임을 한층 빛내 주었다.

모임은 정정자(커미부 65) 동창의 격려사, 광소준(사학 65) 동창의 견배 선창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동창 전원의 만장일치로 송미연(커미부 86) 동창이 부회장, 김은영(커미부 01) 동창이 서기로 새롭게 선출되었다.



모임을 갖고 부회장과 서기를 새롭게 선출한 일본 지회

자카르타 지회

회장 __ 김미송(약학 82)

클래식 강좌로 유쾌한 시간

5월 14일(화), 자카르타 지회는 지난 모임에 뜨



클래식 강좌 2탄을 진행한 자카르타 지회

거운 호응을 얻었던 이은애(작곡 75) 동창의 클래식 강좌 2탄을 진행했다. 바로크 시대의 3대 작곡가 비발디, 헨델, 바흐의 음악과 그에 얹힌 사연들 뿐만 아니라 동창들의 음악 사랑에 대한 경험담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유쾌한 시간이었다.

아울러 사기숙(피아노 75)·강혜경(간호 77) 동창이 손주를 보게 된 것을 축하하였다.

클리블랜드 지회

회장_문성애(생미 81)

다양한 정보와 나눔으로 품성한 동창회

6월 22일(토) 전희선(의학 88) 동창의 집에서 많은 동창들과 부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최화자(법학 65)·윤정분(의직 69)·김정진(의학 72)·인명숙(약학 73)·유용희(국제사무 80)·김영미(영교 82) 동창 부부와 집을 제공한 전희선 동창 부부 그리고 전민자(약학 67)·김진경(의학 81)·문성애·노희용(약학 82)·김인숙(정의 83)·임영미(교육 83) 동창과 게스트 한 명, 모두 21명이 참가하였다.

전희선 동창의 부군이 더운 날 홀로 데크에서 꼬치 구이를 해주어 모두들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전희선 동창은 홈피아노 콘서트를 열고, 쇼팽, 슈만, 베토벤의 곡을 연주해 동창들을 설레게 했

다. 전 동창은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한국 TV 드라마의 주제가 OST를 여러 곡 연주하고 드라마 이름을 맞추게 하여 상도 주면서 동창들을 긴장시켰다. 두 아들의 엄마이자 병리학 의사인 전희선 동창은 자신이 속한 학회에서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 다음달에 한국의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피아노 연주도 하며, 9월에는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 학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유롭게 대화를 이어가던 동창들은 지하실로 자리를 옮겨 탁구도 치면서 친목을 다졌다.

전희선 동창은 집으로 돌아가는 동창들에게 선선하면서 부드러운 치즈를 구디백에 넣어 주었고, 오랜만에 참가한 김영미 동창도 화장품을 선물했다. 이번 이화 만남은 정말 눈, 귀, 손 그리고 마음 또한 풍성해진 시간이었다.

7월 모임은 마지막 수요일에 Beachwood에 있는 Shuhei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반가운 이들이 함께 모여 이런저런 살아가는 지혜도 나누었다.

요즘 부군과 함께 골프를 열심히 치며 부부애를 확인하고 있는 윤정분 동창과 야채를 삶아서 만드는 건강 주스 만들기를 소개해 준 전민자 동창, 매일 열심히 30분씩 수영을 빼놓지 않으며 건강한



전희선 동창의 집에서 모임을 가진 클리블랜드 지회 동창들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강한 의지력에 늘 산뜻한 미소를 잃지 않는 인명숙 동창, 손녀 돌보느라 허리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간단한 체조를 가르쳐 준 임영미 동창, 산후 집으로 들어온 딸 내외와 즐겁게 살며 딸만큼이나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노희용 동창, 손녀 돌보느라 캘리포니아를 오가면서도 계속 동창회에 나오고 있는 고마운 유용희 동창, 오랜만에 얼굴을 볼 수 있어 반가웠던 이지연 동창, 젊은 대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여전히 젊은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가끔씩 컴퓨터 그래픽으로 우리를 놀라게 해주는 문성애 회장 그리고 요가를 배우는 데 열중하다 결국 Solon 요가 클래스에서 티칭까지 하고 있는 김영미 동창 등 다양한 동창들의 재미있는 삶의 이야기들로 꽂을 피웠다. 시애틀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는 노희용 동창이 참가할 예정으로 있다.

8월 28일(수)에는 Korea House Restaurant에서 한국의 가을날처럼 아름다운 날에 Cleveland Downtown, Asian Evergreen Apt에 사시는 네 분의 어르신들과 노희용 동창의 어머님을 모시고 11명의 동창이 점심을 대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모처럼 참석해 준 김정진·이선희(심리 70) 동창과 음식 이야기, 건강, 정치, 국제 정세를 논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매년 행사를 주관해 주는 전민자 동창과 차편을 도와준 인명숙 동창 덕분에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

토론토 지회

회장 __ 김혜연(법학 85)

달라서 더욱 특별했던 여름 야유회

'여름 야유회'가 6월 15일(토) 유인희(체육 56) 동

창 자택의 콘도파티룸에서 열렸다.

매년 공원에서 열리던 야외 행사였지만, 올해에는 행사 며칠 전 전해진 비 소식으로 부득이하게 실내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우천으로 인한 실망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근사한 '실내 피크닉 파티'로 완성됐다.

32명의 참석자들이 손수 마련한 포트럭 뷔페는 그 어떤 레스토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솜씨와 정성이 돋보이는 밥상'이었다. 행사장 한편에는 최 인자(식영 66) 동창이 준비한 액세서리 판매 코너가 문을 열었다. 독특한 디자인의 주얼리들은 참석자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판매 수익금은 동창회에 기부했다.

식사 후에는 윤미경(사복 93) 동창과 장형숙(통계 97) 동창의 사회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순서가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OX 퀴즈, 림보게임, 단체 댄스 등을 함께 즐기며 또 하나의 행복한 추억을 쌓았다.

토론토 지회는 연중행사인 봄 소풍, 여름 야유회,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총회 겸) 외에도 연 3~4회 열리는 기도 모임 횟불회와 다양한 동호회 활동(가야금 동호회, 걷기 모임, 골프 동호회, 화음



우천으로 실내 피크닉 파티를 진행한 토론토 지회

회, 선사인 봉사회 등)들로 활발한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되었다.

파리 지회

회장__함미연 (불문 81)

봄맞이 재불 이화 가족 야유회 개최

파리 지회에서는 6월 1일(토) 동창 간의 따뜻한 정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자 피크닉을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작년과 달리 장소를 변경하여, 지난 2018년 개관한 파리 국제대학 기숙사촌 한국관 앞에 있는 정원에서 야유회를 진행하였다. 화창한 날씨 덕분인지 작년보다 더 많은 동창들이 가족과 함께 참석해 주었고,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을 통한 홍보로 젊은 신입 동창들도 많이 찾아 주었다. 동창 및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정원 풀밭에 뜻자리를 깔고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만끽하며 곳곳에서 이야기꽃을 피워나갔다.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은 뒤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 준비한 경품 및 기증품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야유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 함께 교가를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



연례행사인 6월 야유회를 개최한 파리 지회

홍콩 지회

회장__최명성(교공 76)

현지인 자선오찬에 이화동창 참여

지난 6월 21일(금) 구룡의 새로운 명소 오페라하우스 중식당 'Moon Lok'에서 홍콩에서 신뢰 받는 자선단체 중의 하나인 'Food Angel'이 주최한 현지인 초청 자선 오찬에 최명성 회장을 비롯하여 9명의 동창들이 각자 후원금을 내며 참석했다.

'Food Angel'은 'Waste Not, Hunger Not'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급 호텔에서 장식용으로 사용되고 남는 재료들이나 슈퍼마켓에서 판매 후에 남은 잉여 채소, 육류, 해조류 등을 활용해 만든 음식을 독거 노인과 빈민들에게 무료로 나눠 주는, 여러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봉사활동과 관련된 부엌 시설, 창고, 운반 작업, 음식 준비 등 필요한 비용을 자선행사와 많은 봉사자들과 자선가들에 의해 조달하고 있다.

홍콩 지회 동창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자선 행사에 이화의 이름으로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의 발전과 동창의 결속을 다질 예정이다.



'Food Angel' 주최 자선 오찬에 참석한 홍콩 지회 동창들

이경순(서양 50)·조기주(서양 79) 동창

화가 이경순 동창이 8월 28일(수)부터 9월 3일(화) 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열린 ‘한국여성미술인 모녀지간’ 전에 딸 조기주 동창과 함께 참여하였다.



이경순·조기주 동창

황수로(수학 58) 동창

국가 무형문화재 제124호 궁중 채화장 장인 황수로 동창이 사재를 털어 옛 궁중에서 사용하던 꽃장식인 궁중채화(宮中綵花) 박물관을 설립하였다. 9월 21일(토) 개관한 경남 양산 소재 한국 궁중꽃박물관은 개관 기념으로 ‘고종정해진찬의’를 재현한 ‘왕조의 신비’ 특별전을 개최한다.



황수로 동창

문희(약학 59) 동창

4월 29일(월) 대한민국 헌정회 인구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명예이사장으로 재선임되었다. 문희 동창은 제17대 국회후반 여성 가족위원장을 역임했다



문희 동창

한순정(서양 59)·서강일(서양 62)·윤영자(섬 예 67)·성기순(섬 예 69)·김현실(서양 70)·윤성자(섬 예 73)·오명애(장미 74)·정나경(서양 71입)·표양숙(조소 76)·최용순(서양 77)·최양미(서양 78)·서정숙(생미 79)·김현종(동양

85)·이혜영(도예 87)·민은규(서양 89)·박현우(서양 89)·남궁경(서양 90)·채현주(동양 90)·홍진희(서양 92)·조혜리(장미 93) 동창

모교 미대 동창으로 구성된 남가주 녹미회(회장 서정숙)가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9월 17일(화)부터 28일(토)까지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이 주최하고 남가주 녹미회가 주관하는 전시회는 ‘녹색의 다양함(Verdent in Diversity)’을 주제로, 회화, 디자인, 공예, 섬예, 민화 등 85점의 작품을 전시했다. 남가주 녹미회는 2010년 발족, 2011년 첫 LA 녹미전을 개최했으며 이후 정기적으로 녹미전을 열고 있다.

이효범(섬예 61) 동창

7월 2일(화)에서 13일(토)까지 서울 용산구 소재 파비온드 갤러리에서 (사)녹미미술문화협회 초대 전에 참여했다.



이효범 동창

송창주(가정 62) 동창

송창주 동창이 관장으로 있는 네델란드 소재 이준열사기념관은 7월 13일(토) 이준 열사 112주년 추모식을 거행하였다.



송창주 동창

곽연(곽연화·서양 67) 동창

갤러리 아트뮤제의 초대로 라마다 용인 호텔에서 ‘Harmony of Colors’를 주제로, 8월 3일(토)부터 9월 2일(월)까지 한 달간 전시회를 가졌다



곽연 동창

손정례(섬예 72)·손인숙(섬예 76)·박정례(섬예 79)·차영순(섬예 80)·이상영(섬예 94)·박서린(섬예 96)·오시연(섬예 98)·신지혜(섬예 02)·안은선(섬예 02)·조원아(섬예 05)·차수진(섬예 05)·최서윤(섬예 06) 동창

한국섬유미술가회 회장 박정례 동창을 필두로 섬유예술과 동창들이 6월 27일(목)에서 7월 4일(목)까지 도쿄 주일한국문화원 갤러리 MI에서 제19회 한국섬유미술가회 기획전에 참가하였다. 또한 동경예술대학교 염직과를 방문하여 워크숍을 통해서 한·일 간의 교류를 가졌다.



박정례 동창

양승희(사학 73) 동창

7월 9일(화) (사)세계신지식인협회로부터 '세계신지식인상'을 수상하였다. 양승희 동창은 30여년 동안 전자반도체 수출입 사업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한의학에 접목하여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일을 하여 한국의 '세계신지식인'에 선정되었다.



양승희 동창

김영순(무용 74) 동창

8월 6일(화)부터 7일(수)까지 뉴욕 화이트웨이브 김영순댄스컴퍼니(예술감독: 김영순)의 '이터널 나우(Eternal NOW)'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연하였다. '히어 나우(Here NOW)'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으로 2014년 미국 공연예술센터 브루클린 음악아카데미에서 초연되었다.



배순희 동창

배순희(의학 75) 동창

미즈앤미여성의원 원장 배순희 동창이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화이자제약이 주관하는 제14회 '대

한의사협회 화이자 국제협력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배 동창은 세계여자의사회 내 한국여자 의사회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두(물리 77) 동창

소설가 김영두 동창은 소설집『푸른달』출판기념회를 7월 26일(금) 함춘회관 가촌홀에서 개최하였다. 문인 및 동창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박상숙(조소 77) 동창

조각가 박상숙 동창이 7월 3일(수)부터 25일(목)까지 서울 삼청로 현대화랑에서 21년 만에 개인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파리 시기부터 선보였던 '생활 방식(Way of Life)' 시리즈와 작가가 서울로 이주하여 제작하기 시작한 'Volume of Happiness'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나경 동창

이나경(서양 77) 동창

6월 29일(토)부터 7월 28일(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중한수작공예교류전에 참여하였다.



인재근 동창

인재근(사회 77) 동창

인재근 동창이 6월 28일(금) 20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인 동창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및 윤리심판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맡았다.



장영란(섬예 77) 동창

장영란 동창이 25년 동안 재직한 수원대학교에서 정년을 맞이하여 수원대학교에 출강하는 모교 섬유예술과 출신의 교수들(김유림·섬예 89, 전경화·섬예 89, 김선희·섬예 90, 김소희·섬예 92, 김

보민·섬예 94, 서원·섬예 01), 제자들과 함께 6월 10일(월)부터 15일(토)까지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고운 갤러리에서 '2019 수원대학 미술대학 공예디자인과 개설 30주년 기념 교수·동문 초대전'을 개최하였다.

김희경(조소 79) 동창

6월 20일(목)부터 7월 8일(월)까지 Opera Gallery에서 Zhuang Hong Yi와 2인전을 개최하였다.



장영란 동창

유희정(영문 79) 동창

유희정 동창이 한국보육진흥원 신임 원장에 임명되었다. 유 동창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정책위원, 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선임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며 보육 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김희경 동창

신경림(장미 80) 동창

6월 24일(월) 신경림 동창이 시애틀 소재 Bastyr University에서 가족과 동창들의 축하 속에 한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신경림 동창은 쉰 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여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주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 시애틀 지회장과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신경림 동창

김은미(사회 81) 동창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은미 동창이 7월 5일(금)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의 여아역량강화사업 '베이직포걸스(Basic for



김은미 동창

Girls)' 자문위원장에 위촉되었다. 김 동창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이연희(장미 82) 동창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연희 동창이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학장에 임명되었다. 또한 이 동창은 (사)복식문화학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2년이다.



이연희 동창

김민선(김정배·관현 83) 동창

전 뉴욕한인회장 김민선 동창이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MOKAH) 초대 관장으로 6월 14일(금) 취임했다. 맨해튼 소재 뉴욕한인회관 6층에 위치한 한인이민사박물관은 170평 규모로 115년 동안의 미국 한인 이민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된 곳이다.



김민선 동창

김연숙(서양 85) 동창

8월 7일(수)부터 9월 2일(월)까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거문오름 가는 길'을 주제로 그림 에세이 원화전을 열었다. 이 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세계자연유산 등재 12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것이다.

정정엽(서양 85) 동창

지난해 제4회 고암미술상을 수상한 정정엽 동창이 충남 홍성군 '이응노의 집'에서 7월 5일(금)부터 10월 13일(일)까지 수상 기념 전시회를 열었다. '최초의 만찬'은 신작 시리즈이자 이번 기념 전시 제목이다.



정정엽 동창

남연숙(도예 86) 동창

7월 ‘Moving Colors, Series 5’, Chamorro Seascapes II를 주제로 Nissan Infiniti Art Gallery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개인전은 괌 정부에서 운영하는 Guam Fine ‘fli’ e Center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가르친 후 그분들의 작품을 동시에 전시하였다. Guam 문화 예술청(CAHA)에서 ‘The Strength of High-Ranking Women’ 제목으로 예술전이 열려, 7월에 Latte of Freedom 그룹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6월 그룹전 ‘Obra 9’, Guam Filipino Artists(GFA) Art Exhibit에 Special Group 전에 참가하였다.



남연숙 동창

문, 20여 년간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으며, 여성정책담당관을 시작으로 관광레저과장, 창조정보과장, 사회복지과장, 회계과장 등을 역임했다.

채림(불문 86) 동창

보석 디자이너 채림 동창이 서울 강남구 소재 학고재 청담에서 7월 10일(수)부터 8월 25일(일)까지 개인전 ‘옻칠회화’ 전을 열고, ‘보석 회화(Jewelry Painting)’를 선보였다. 현재 국제앙드레말로협회와 프랑스 조형예술 저작권협회의 회원이다.



채림 동창

박영은(서양 86) 동창

서양화가 박영은 동창의 개인전 ‘꽃으로의 초대Ⅱ’가 서울 서초동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 위치한 유디갤러리에서 7월 12일(금)부터 8월 7일(수)까지 열렸다.

안은미(무용 86) 동창

현대 무용가이자 안무가인 안은미 동창이 데뷔 31년 만에 처음으로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안은미래(Known Future)’ 전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1층에서 6월 26일(수)부터 9월 29일(일)까지 열렸다. 전시는 회화, 설치, 영상, 사운드 작품 19점에 퍼포먼스를 펼치는 무대를 포함해 모두 20점으로 꾸몄다.



안은미 동창

홍형숙(교공 86) 동창

다큐멘터리 감독 홍형숙 동창이 7월 1일(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 다큐멘터리 부문 회원으로 위촉됐다.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북미에



홍형숙 동창

서 가장 권위 있는 아카데미상(オスカ상) 시상식을 주관하는 단체이다. 홍 동창은 DMZ국제다큐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11회 영화제는 9월20일(금)부터 27일(금)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열렸다.

김곡미(생미 87) 동창

김곡미 동창이 2019 광복절 전시 행사를 기획하였다. 8월 15일(목) 독립기념관 특별기획전시관에서 열린 ‘제4회 전국 디자인포스터 공모작품 전시’이다. 이 전시에서는 3·1 운동 100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리며 백합으로 만든 조형 작품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김곡미 동창

이송희(법학 86) 동창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에 이송희 동창이 승진·임명되었다. 이 동창은 1997년 공직에 입



이송희 동창

김미경(도예 87) 동창

모교 조형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미경 동창의 개인전 ‘一器日記—期 Thinking Hands’가 7월 13일(토)부터 8월 18일(일)까지 파주 헤이리마을 포네티브스페이스에서 열렸다. 하루에 하나씩 작품을 만들면서(—器), 그날의 일상을 반추하고 기록(—其, 日記)한 전시이다.



김미경 동창

이은경(동양 87) 동창

이은경 동창의 기획 초대전 ‘深心(심심)소나무’가 8월 27일(화)부터 9월 22일(수)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산울림아트앤크래프트에서 열렸다. 이 동창은 묘리(妙理)와 선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며 소나무를 강함에서 약함으로, 양에서 음으로 가는 모습들을 여백으로 확장하면서 자신만의 천성, 감성들을 되짚으면서 작업하고 있다.



이은경 동창

최지영(독문 87) 동창

5월 31일(금) 모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 창립 133주년 기념식에서 모교 독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최지영 동창이 근속 1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와 격려를 받았다.

강덕희(의학 88) 동창

이대서울병원 신장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강덕희 동창이 임상 신장학의 대표적 영문 교과서인 『만성신장병(Chronic Kidney Disease(2nd edition, Elsevier))』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총 50여 명의 저자 중 국내에서는 강 동창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총 1,364페이지로 구성된 이번 신장학 교과서는 8월 27일(화) 정식 출간되었다.

고산금(서양 88) 동창

고산금 동창의 개인전 ‘한없는 관용(Infinite Tolerance)’이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갤러리 바톤에서 8월 30일(금)부터 10월 2일(수)까지 열렸다. 고 동창은 국내 주요 미술관 및 해외 유수의 미술 기관에서 활발한 전시를 이어왔으며,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등에 소장됐다.

서은진(조소 88) 동창

한지작가 서은진 동창이 크로아티아 볼에서 열리는 BOL Summer Festival 행사 초청을 받아, 7월 22일(월)부터 30일(화)까지 ‘아름다운 행복’이라는 주제로 초대전을 가졌다. 크로아티아 지역예술인의 초대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한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15점이 전시되었다.

손소명(커미부 88) 동창

미국 할리우드에서 프로듀서 겸 캐스팅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손소명 동창은 현재 환경보호를 모티브로 한 장편영화를 준비 중이며, 한국 광고와 이벤트에 할리우드 셀럽을 캐스팅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스탠 리의 장편영화 제작을 위한 티저를 비롯하여 구글, NBA(전미 농구협회), 싸이파이 채널의 프로젝트, 피아트 자동차 커머셜 등에 프로듀서로 일하였고, 캐스팅 디렉터로는 할리우드 스타, 스포츠 스타 등을 직접 캐스팅한 바 있다.



손소명 동창

호해란(조소 88)·김양선(조소 94)·박효진(조소 98) 동창

6월 26일(수)부터 7월 2일(화)까지 갤러리 롤랜드에서 ‘NOCTURNE’ 전을 개최하였다.

김선영(조소 89) 동창

7월 4일(목)부터 31일(수)까지

Gallery We에서 조각가 김선영 동창이 21번째 개인전을 개최하

였다. 이번 초대전에는 레진, 옥, 청자, 크리스탈, 스텔, 스테인레

스 스텔, 브론즈, 대리석 등 다양

한 재료의 사용으로 관람객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확장시키는 2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였다.



김선영 동창

김선주(서양 89) 동창

5월 29일(수)부터 6월 4일(화)까지 인사동 토포하

우스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전경화(섬예 89) 동창

8월 13일(화)부터 29일(일)까지 합

정동 갤러리 A BUNKER에서 '선

으로 말하는 자주적 메타포'라는

주제로 초대전을 열었다. 폴리

비닐실을 이용하는 전경화 동창

은 곡선을 매개 요소로 하여 자

아의 내면세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함으로서 섬유

조형의 새로운 예술성을 보여 주고 있다.



전경화 동창

문소영(커미부 90) 동창

7월 26일(금)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원(대통령 위촉)으로 위촉되었다.

서울신문 논설실장인 문소영 동창의 임기는 2년

이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

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진영주 동창

진영주(법학 91) 동창

진영주 동창이 스마트인피니의 새 대표로 선임되었다. 진 동창

은 테마파크 본부장과 IT레저 그

룹 통그룹의 여러 계열사에서 대표를 역임하는 등 여행/레저업계 및 유통업계에서 29년간 몸담아온 전문가다. 이번 인사로 스마트인피니 대표 및 (주)통 대표를 겸임한다.

차종례(조소 92) 동창

6월 10일(월)부터 29일(토)까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표갤러리

에서 개인전 '크리에이션 앤 익

스텐션(Creation & Extension)'을

개최하였다.



차종례동창

김정아(동양 93) 동창

6월 17일(월)부터 29일(토)까지

김정아 동창의 '길.빛.결' 전이 서

울시의회 본관 중앙홀 갤러리에

서 기획 초대전으로 열렸다.



김정아 동창

박영희(동양 93) 동창

6월 20일(목)부터 27일(목)까지

서산시 서산문화회관 전시실에

서 '수영장 그림 속으로 떠나는

일상의 휴가'를 주제로 초대전을

가졌다. 7월 15일(월)부터 9월 15

일(일)까지 샘표스페이스에서 개

인전 'One Summer'를 열었다. 박영희 동창은 일

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여유와 행복을 즐길 수 있

는 휴식의 공간인 '어느 여름날'을 선사하였다.



박영희 동창

서은애(동양 93) 동창

7월 23일(화)까지 전주 누벨백미

술관에서 개인전 '상처의 지층' 전

을 진행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지에 흙물을 발라 완성한 동양

화 10여 점을 선보였다. 서은애

동창은 현재 모교 조형예술대학



서은애 동창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인숙(도예 93)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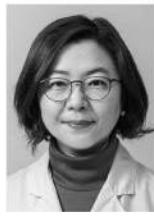
이인숙 동창의 개인전 ‘인공림’ 전이 6월 25일(화)부터 7월 21일(일)까지 갤러리임에서 열렸다.



이인숙 동창

한수정(의학 93) 동창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한수정 동창이 최근 ‘2019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제29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수여하는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연구의욕과 사기를 높이고 연구 분위기 제고 및 과학기술 수준 향상과 선진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한수정 동창

김선해(특교 94) 동창

김선해 동창이 9월 1일(일)자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초등지원과 장학사에 임용되었다.



김양선 동창

김양선 (조소 94) 동창

6월 14일(금)부터 27일(목)까지 Gallery Artrie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무와 제주비엔날레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제주비엔날레는 내년 5월 열릴 전망이다.

안인모(피아노 97) 동창

안인모 동창이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팟캐스트 ‘클래식이 알고 싶다’를 책 『클래식이 알고 싶다-고독하지만 자유롭게, 낭만 살롱 편』으로 펴내고, 책을 기반으로 한 플레이북 콘서트 ‘낭만 살롱, 고독하지만 자유롭게’를 9월 18일(수) 세종체임버홀에서 열었다.



안인모 동창

김자영(관현 99) 동창

9월 1일(일)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미루스 트리오 플러스 원’ 연주회를 가졌다. 첼리스트 김자영 동창이 속한 미루스 트리오는 2007년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꾸준한 정기 연주회를 열고 있다. 김 동창은 모교에서 강단에 서고 있으며, 김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이다.



김자영 동창

윤혜정(국제사무 99) 동창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윤혜정 동창이 7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 부산에서 열린 제21회 국제전자상거래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 Commerce)에서 최우수논문상인 Innovative Research Paper Award를 수상했다.



윤혜정 동창

김경진(도예 95) 동창

제주도립미술관(관장 최정주) 학예연구과장에 김경진 동창이 임명됐다. 김 동창은 학예연구과 업

박성희(성악 01) 동창

9월 2일(월)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소프라노 박성희, 국창 임방울을 그리다’를 무대에 올렸다. 박

성희 동창은 명장 임방울의 외손녀로 이탈리아 유학까지 마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다.



박성희 동창

이오성(동양 02) 동창

한국화가 이오성이 프랑스 파리 Galerie 89에서 7월 31일(수)까지 첫 개인전을 열었다.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이왈종 화가의 딸이기도 한 이 동창은 사랑과 평화를 위한 종교적 작품 세계를 주제로 작업해 왔다.

이윤지(성악 04) 동창

소프라노 이윤지 동창의 공연이 9월 30일(월) 경상대학교 지앤유 북카페에서 열렸다. 전문 공연장이 아닌 북카페에서 진행되어 일반 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이번 공연은 클래식의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윤지 동창

백경원(성악 05) 동창

소프라노 백경원 동창이 9월 4일(수)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독창회를 가졌다. 백 동창은 현재 보컬 프로젝트 그룹 PLAY C를 결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편, 삼육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출강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백경원 동창

서재정(회화·판화 06) 동창

서재정 동창의 '형태공간' 전이 8월 3일(토)까지 우민아트센터 '2019 프로젝트스페이스 우민'의 네 번째 전시로 열렸다. '프로젝트스페이스 우민'은 단순한 공간 지원을 넘어, 유망한 신진작가들의

다양한 창작 매개를 위한 실험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김지희(동양 07) 동창

7월 4일(목)부터 25일(목)까지 세운상가 메이커스큐브 2층 '스페이스바'에서는 프로젝트 그룹 10AAA와 함께 '골든에이지, 을지로' 전시를 열었다. 한편 초대 전 'MAXIMUM'이 8월 14일(수)부터 9월 15일(일)까지 뮤지엄 다에서 전시되었다.



김지희 동창

김아리(의학 09) 동창

미국 신시내티 어린이병원에 임상강사로 근무 중인 김아리 동창이 올해의 미국소아내분비학회 호르몬 연구 논문상을 공동수상했다. 미국소아내분비학회(PES)는 지난 1년 동안 실린 논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논문 한편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김아리 동창

고형지(도예 09) 동창

김세중미술관에서 개인전 'Light Pillar'를 7월 9일(화)부터 21일(일)까지 가졌다.



고형지 동창

이은영(도예 09) 동창

개인전 'Open Lab: Material Possibility'를 6월 19일(수)부터 24일(월)까지 KCDF 제2전시관에서 가졌다.



이은영 동창

유정원(조소 10) 동창

개인전 '꽃을 빚다'를 7월 2일(화)부터 6일(토)까지 이화갤러리



유정원 동창

에서 열었다.

안지아(생미 12) 동창

광림미술인 선교회에서 주최하는 ‘물맷돌’ 프로젝트 청년작가 공모전에 선정되어, 매년 2회에 걸친 정기전과 활동에 참가할 예정이다.



안지아 동창

이다희(서양 13) 동창

8월 8일(목)부터 9월 15일(일)까지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음악을 변안하는 방법’ 전을 열었다. 이 전시는 지난 3월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지 ‘프로젝트 입주’ 부문에 선정된 이다희 동창의 결과 보고전으로, 지난 5개월간 수행한 작업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다.

박선화(의학 14) 동창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전임의 박선화 동창이 한국모자보건학회 춘계 연수강좌에서 ‘미래모자보건학자상’을 수상했다. 박 동창은 ‘임신성 당뇨의 선별검사로서의 75g 그리고 50g 경구포도당



박선화 동창

부하검사의 공통 데이터 모델 (Common data model, CDM)을 활용한 주산기 예후에 대한 비교’라는 주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윤지(동양 14) 동창

7월 28일(일)부터 8월 10일(토) 까지 개인전 ‘지나가는 것들 – Fleeting Moments’를 개최하였다. 박윤지 동창은 한지의 번짐성을 이용하여 일상의 소소한 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찰나의 순간 지나가버리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표현한다.



박윤지 동창

신다인(도예 16) 동창

6월 5일(수)부터 18일(화)까지 갤러리미에서 개인전 ‘우리의 생각은 작은 구멍에서’를 전시했다.



신다인 동창

이재은(도예 16) 동창

개인전 ‘일상 속 과물’ 전을 6월 21일(금)부터 7월 7일(일)까지 카페 보스토크×스페이스 공공연회에서 가졌다.



이재은 동창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

총동창회 선교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화발레앙상블의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이 12월 14일(토) 모교 대강당에서 두 차례 무대에 오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는 감동적인 발레 공연에 많은 동창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9년 12월 14일(토) 4시, 7시 30분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
- 티켓: R석 3만 원, S석 2만 원

※ 티켓 구입 및 문의는 총동창회 사무실이나 각 대학 동창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 수익금은 세계 각지에서 사역 중인 이화동창 선교사들을 위해 쓰입니다.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 이화인 26명 최종 합격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모교 재학생과 졸업생 26명(동창 14명, 재학생 12명)이 최종 합격했다. 금융감독원은 8월 28일(수)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합격자 1,00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6월 29일(토)부터 30일(일)까지 실시한 제2차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총 3,006명이 응시했으며, 합격률은 33.6%, 이 중 여성 합격자는 30.5%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증가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모교는 매년 지원자 대비 전국 상위권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올해까지 모교가 배출한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는 총 595명에 이른다. 특히 이번에는 경영과 경제 외에 기독교, 식영, 영문, 사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합격해 눈길을 끌었다.

9월 4일(수)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경영대와 이화공인회계사회 주최로 합격자 축하 모임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영대 교수, 회계사 동창, 합격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합격의 기쁨을 나누고 앞날을 축하했다. 김정권 경영대학장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회계사 동창 선배들이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 자체로 참으로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동안 들여온 노력의 결실인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만큼 더욱 당당하고 멋진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바라고, 특히 언제나 겸손하고 배려하는 이화인의 모습을 간직하기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이화공인회계사회의 회장 서지희(삼정KPMG 전무, 경영 85) 동창을 비롯한 회계사 동창 31명이 합격자들에게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했다. 이번 공인회계사 합격과 함께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게 된 노영주(경영 13 입학) 재학생은 “공인회계사반 스터디룸에서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 덕분에 수험기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고, 여러분으로 도움을 주신 교수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삼정회계법인의 선배 회계사를 중심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신세계관 1층 로비와 ECC 내일라운지에서 동창 회계사들과의 1:1 멘토링이 진행됐으며, 이어 4시 15분부터는 국제교육관 LG 컨벤션홀에서 공인회계사 소개 및 동창들의 합격 수기를 발표하는 ‘CPA Day 행사’가 열렸다.

모교 경영대학이 지원하는 공인회계사반(주임 교수: 경영학부 우용상 교수)은 이화 여성회계사 배출의 요람으로서 회계사 진출의 꿈을 가진 이화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반은 공인회계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실시, 장학금 지급, 도서 구입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제54회 공인회계사 합격자 동창 명단

(26명 중 동창 14명, 재학생 12명)

김다혜(경영 17), 김민정(국제학 18), 김재하(경영 17)
김한희(철학 15), 박두리(법학 18), 신상희(경제 14)
신정은(경영 13), 우아미(경영 18), 유혜경(경영 19)
이시내(사회과교육 18), 이지현(경영 18)
이희연(사학 12), 임수진(식영 19), 한수연(기독 19)



(앞줄 왼쪽부터)한종수·박경희 교수, 김정권 경영대학장, 서지희 동창, 우용상 교수
(뒷줄)제54회 공인회계사 합격자

동창이 펴낸 책



모든 삶은 아름다워야 한다

박보희(사복 51)

박보희 지음 / 소화

한국사회정보연구원장 박보희 동창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 에세이를 펴냈다. 박 동창은 국내 첫 사회복지학 박사이자 국제사회개발 전문가이다. 이 책은 일제 강점기, 해방 후 정국과 한국전쟁, 그 후에 이어진 민주화를 위한 어지러운 사회라는 우리나라 현대사 속에서 일찍이 부모 곁을 떠나 홀로 성장하고 자신의 길을 거침없이 모색해 온 한 인간의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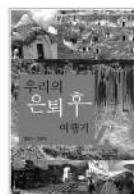
우리의 은퇴 후 여행기 4

민병희(영문 60)

홍용식·민병희 지음 / 비매품

민병희(인하대 명예교수·문학박사) 동창이 부군 홍용식(인하대 명예교수·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종신회원) 박사와 공저로, 「우리의 은퇴 후 여행기」 4부를 출판했다. 2010년 1부,

2013년 2부, 2016년 3부에 이어 계속되는 이 여행기는 기록을 목적으로 쓰기 시작한 비매품이다.



엄마, 이제는 눈물이네요!

윤수영(국문 65)

윤수영 지음 / 소소리

윤수영 동창이 다섯 번째 에세이 「엄마, 이제는 눈물이네요!」를 펴냈다. 70대 후반의 윤 동창은 이 책에서 4년 반 동안 매주 요양원을 찾아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엄마는 우산이었고 베풀 목」이었음을 섬세한 문체로 표현했다.



먹구름을 헤쳐가는 밝은 마음

정문자(의학 66)

정문자 지음 / 문예운동사

정문자 동창의 첫 번째 수필집이다. 미국 주류사회와 한인 이민사회의 생활 모습을 문학이라는 매체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정 동창은 『수필 시대』로 등단하였으며 애틀랜타 여성문학 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재단 명예이사, 둘루스문화센터 이사장이다.



사적인 너무나 사적인 순간들

박지영(외국어교육 79)

박지영 지음 / 시인동네

시인 박지영 동창이 7년여 만에 펴낸 신작 시집. 지난해 산문집 「꿈이 보내온 편지」를 통해, 자신이 천착해 있는 꿈과 일상의 말들을 시적으로 받아 적으며 독자들에게 현실을 잠시 탈주할 수 있는 동환적인 휴식



을 주었다면, 이번 시집은 더 내밀하게 「꿈」이 맺혀 있는 밤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임윤지당 평전

김경미(국문 83)

김경미 지음 / 한겨레출판

원주의 대표적인 여성 인물이자 조선 후기 최고의 여성 성리학자로 꼽히는 임윤지당(1721~1793년)의 평전으로, 임윤지당의 삶과 학문을 넘어 18세기 여성사의 한 부분까지 정리해냈다. 모교 이화인문과학원 교수 김경미 동창은 이 평전을 쓰기 위해 10여 년간 임윤지당에 대한 자료를 모으며 연구했다.



프랑스 엄마의 힘

유복렬(외국어교육 85)

유복렬 지음 / 황소북스

프랑스에서 유학과 외교관 생활로 14여 년을 보낸 유복렬 동창이 두 자녀의 엄마로서 프랑스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프랑스 엄마들과 교류하며 보고 느낀 것을 썼다. 유복렬 동창은 현재 주 카메룬 대사로 아프리카 지역 18개 공관의 유일한 여성 공관장이다.



그를 만나고 말 테다!

안소연(국문 92)

안소연 지음 / 문학의문학

성우이자 수필가인 안소연 동창이 펴낸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과 지인들의生生한 연애담을 통해 깨우친 지혜와 연애 해법들을 전한다. 안 동창



은 마치 언니가 얘기하듯 친근하고 설득력 있게 연애 노하우를 전한다. 책 속에 담긴 40여 편의 글에는 연애의 실패를 줄여 주는 현명함이 담겨 있다. 안 동창은 1992년 KBS 23기 성우로 방송에 첫 발을 내딛었으며, 현재 방송 진행, 화술 강의와 더불어 『투데이신문』에서 「그린라이트」라는 연애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회색인의 주장가

최윤경(영문 97)

최윤경 지음 / 삼인

소설가 최인훈(1936~2018)의 딸인 최윤경 동창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날들을 추억하는 산문집을 펴냈다. 한국문학에 중요한 획을 그은 대작가에 대한 그 딸의 특별한 회고로 '소설가 최인훈'과 '아버지 최인훈' 사이

의 심연이 살갑고도 애틋하게 그려져 있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됐으며, 각 부의 끝에는 최인훈이 딸에게 추천했던 도서와 이에 얹힌 일화를 담았다.



ewhaalum.or.kr

총동창회 홈페이지 이용해 보셨나요?

<http://www.ewhaalum.or.kr>

23만 이화동창의 소통과 나눔을 위해 개설된 총동창회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총동창회의 다양한 행사 일정과 동창들의 근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화동창을 위한 모교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고 혜택을 누리세요.
지난호 『이화동창』도 언제든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http://www.ewhaalum.or.kr>



최고의 성혼율 S노블



“Looking for spouse?”

참 한결같은 S노블

아무나 가입을 혀락하지 않고 함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100% 만족을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꼭 맞는 만남을 찾고자 노력하는 S노블

만족의 크기가 다릅니다. 1%의 만남을 위한 100%의 약속, S노블

성혼시까지 무기한·무제한 결혼정보 서비스로 성혼을 책임집니다.

SINCE1999

www.snoble.com

이화여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번지 패밀리빌딩 2F |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클럽
 **S Noble**
SINCE 1999

‘2019 이화인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연말의 가장 성대한 행사, ‘2019 이화인의 밤’ 행사에 동창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화인의 밤’ 행사는 우리가 이화에서 교육받게 된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고 선후배, 동기동창, 은사와 제자가 한자리에 모여 추억과 우정을 나누며 함께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즐겁고 기쁜 송년의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식과 함께 멋진 음악회와 풍성한 선물이 마련돼 있습니다. 티켓은 각 대학(원), 과(학부) 동창회에서 미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11월 25일(월) 오후 6시
- 장소 :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볼룸
- 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삼성역 5번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
(지하로 오실 경우 파르나스몰 내 연결 엘리베이터 이용)
*행사 당일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티켓 대금 : 15만 원
- 문의 : 총동창회 사무실(전화: 02-3277-3386~7)

